

함께하는 FTA

December 2014 vol. 31



한·중 FTA 협상 타결- 14억 중국시장 공략 성공 해법은?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송이실업

수출농업 현장탐방: 용평 여름딸기

ADIEU 2014, WELCOME 2015!!



숨 가쁘게 달려왔던 2014년,
한국은 중국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습니다.
또한 미국, EU, 중국의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유일한 나라(세계 10대 경제권 중)로
국제통상 무대에서 FTA 허브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한국의 FTA와 함께했던 관계자와 기업 실무자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글 김보람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FTA People

11월 10일 한·중 FTA 실질적 협상 타결이 선언됐다. 송민희 씨(23·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2학번)가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할 당시(10월 16일)는 한·중 FTA 연내 타결이 불투명할 때였다. 송 씨는 "경진대회 포스터를 보고 주위에 문의했더니, '아직 체결되지 않은 FTA라서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지만, 한·중 FTA 타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한·중 FTA 활용 방안을 제시해보고 싶었다"고 주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씨는 국내 식품업체가 제조한 쌀곡수 제품을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례를 발표했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송 씨는 사전에 제시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A4 용지 두 장에 출력해왔다. 학생다운 준비성이다. 덕분에 인터뷰는 쉽게 끝났다. 중문학을 전공한 송 씨는 올해 7월까지 칭다오대학교에서 1년 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기도 했고,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2014 한중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 '한중 경제교류의 발전과 협력방안-한·중 FTA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수상하기도 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FTA에도 관심이 많다. 이미 대구FTA활용지원센터에서 20시간 'FTA 전문가 양성교육'을 받았다.

송 씨는 향후 한·중 FTA로 더욱 커지는 중국시장에서 통상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단순히 중국어만 구사하는 것이 아닌, 중국인들의 사고와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칭다오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한·중 간에 활발한 경제교류가 이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경제통상학을 전공해 통상분야를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실제 이번 학기부터 경제통상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해 공부하고 있다. 어느 학생답지 않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는 모습에 머잖아 그의 다짐이 실현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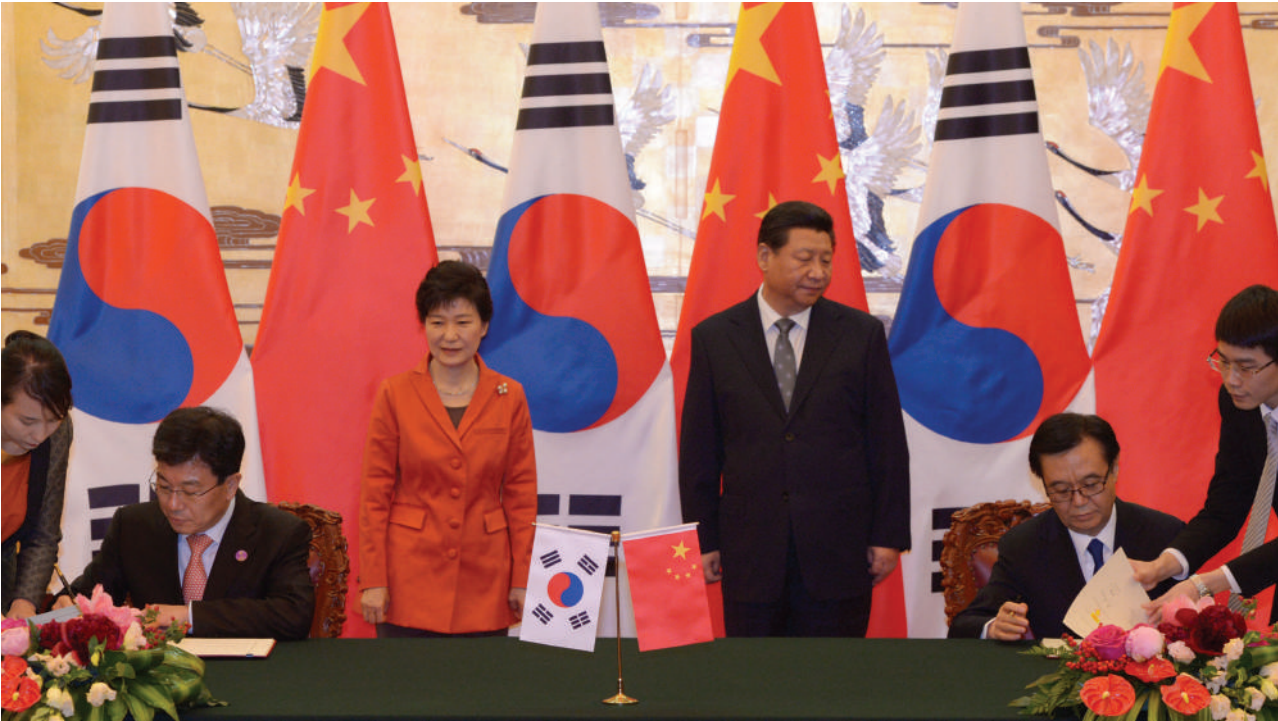
중국인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통상전문가가 될래요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학생부문 최우수상 **송민희**



COVER STORY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11월 10일 한·중 FTA가 협상 30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다. 14억 명의 중국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성공 방정식은 무엇일까?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4년 12월 5일(통권 31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VER STORY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가
잇따라 협상 타결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EU·중국이라는
세계 3대 경제권과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체결하면서 GDP 기준 경제영토를
73.45%로 확대했습니다. FTA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미래를 이번호 표지로 표현했습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FTA People

01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학생부문 최우수상:
송민희

Adieu 2014

04
2014년 FTA 7대 뉴스

Issue Focus

06
한·중 FTA 협상 실질 타결

10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

FTA Cartoon

12
튼튼한 뿌리가 되다!
안종만

COVER STORY

14
한·중 FTA 타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16
한·중 FTA 농업부문의
영향과 과제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
중소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엄부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20
지상중계:
한·중 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FTA Lounge

24
2014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송이실업(대상)

26
수출농업 현장탐방:
용평 여름딸기

FTA Study

28
자유무역의 역사:
①무역기술장벽(TBT)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30
세계의 FTA:
①멕시코의 FTA 추진동향
이해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32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①의류
이민선 관세사

34
사후검증 따라잡기:
①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자료 구성Ⅲ
강동구 관세사(FTA무역총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Culture Prism

36
인문학 강의:
'변신'에서 주인공을
벌레로 만든 까닭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장(문학박사)

38
전통한과 무형문화재
최봉석 명인

40
해금 연주 듀오
투해금

FTA News
42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등

Index

44
FTA 용어 & 독자의 소리

2014년 FTA 7대 뉴스

중국·뉴질랜드와 FTA 협상 타결, 경제영토 73.45%로 확대

01 한·중 FTA 협상 타결(11월 10일)

2014년 FTA 관련 가장 큰 이슈는 단연 한·중 FTA 협상 타결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대상이자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어, 그간 한국이 맺은 어떤 FTA보다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중국과의 FTA는 한국에게도 큰 도전이지만, 중국측도 그간 맺은 FTA 중에서 가장 개방도가 큰 FTA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은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 양허수준은 한·EU/한·미 FTA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발효 2년 뒤 중국측 서비스시장 개방을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약속을 받아내는 등 향후 좀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으로서도 FTA 발효 초기 산업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얻어낸 만큼 각오를 다질 때다.

02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11월 15일)

인구 440만 명의 뉴질랜드는 경제규모는 크지 않지만, 유제품, 육류 등의 낙농업이 발달한 나라다. 한국은 송용차, 철강, 기계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뉴질랜드로부터는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입해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는 농림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할 제도적 틀을 마련해 뉴질랜드의 선진 농업기술을 공유해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 쿼터는 현행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되고, 어학·교육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고용제한기간도 완화된다. 또한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연간 150명, 8주 간)하는 교류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올해 가장 늦게 협상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로 한국의 FTA 경제영토는 73.45%(GDP 기준)로 늘어나게 됐다(GDP는 2013년 세계은행 기준).

03 한·호주 FTA 발효(12월 12일)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한·호주 FTA 비준안이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내 절차 완료 후 통보하는 서한을 호주와 교환해 12월 12일 한·호주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한·호주 FTA는 우리나라의 10번째(발효 기준) FTA다. 호주는 아시아에 속하지만, 지리적으로 아메리카, 유럽보다 아시아에 가깝게 위치한 선진시장이다. 구매력이 높으며,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한국 공산품 수출에 유리하다. 반면 한국은 호주에서 주로 철광석, 유연탄,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2017년까지 호주 내 모든 자동차 제조공장이 철수하면 100% 수입시장이 되어 한국이 강점을 지닌 자동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째인 2014년, 한국의 통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돌아갔다.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협상 타결이 이뤄졌고,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 협상도 마무리 지었다. 지난해 말 TPP 관심표명 이후 TPP 가입국들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거치며 TPP를 예의주시하기도 했다. 숨가쁘게 흘러갔던 2014년의 FTA 7대 뉴스를 정리해 보았다.

04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12월 2일)

12월 2일 한·캐나다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며 발효를 앞두고 있다. 캐나다는 의회 심의를 완료하고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내각 승인만 남은 상태로, 연내 자국내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캐나다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인구 3,483만 명으로 한국보다는 적지만, 1인당 GDP는 4만3,100달러의 구매력이 높은 시장이다. 한국의 대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은 송용차(2013년 수출비중 42.8%)로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6.1%인 관세가 3년에 걸쳐 철폐된다. 캐나다 입장에서 아시아국가와 처음 맺는 FTA인 만큼 한국은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05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가서명(9월 18일)

대부분의 FTA가 상품·서비스·투자를 포괄하는 협상을 타결하고 발효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상품·서비스·투자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기도 한다. 2013년 5월 1일 기본무역협정 및 상품협정이 발효된 한·터키 FTA는 발효 직후 서비스·투자 협상을 시작한 뒤 1년 내 협상 타결을 하기로 약속돼 있었다. 양국은 7차에 걸친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한 뒤 지난 7월 4일 실질타결을 이룬 뒤 법률검토를 거쳐 최종문안을 확정된 뒤 서명에 이르렀고, 2015년 초 정식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06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실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는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말 '관심 표명'을 한 상태다. 관심 표명 후에는 기존 참여국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한 뒤 '공식 참여 선언'을 하고, 이어 기존 참여국들의 참여 승인을 받으면 공식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아직 공식 참여 선언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올해 초 기존 참여국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해 공식 참여 선언 전 단계를 완료하고 참여 선언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의 양자협의 등 TPP 협상에서 결정될 개방수준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참여 선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07 한·칠레 FTA 10주년(4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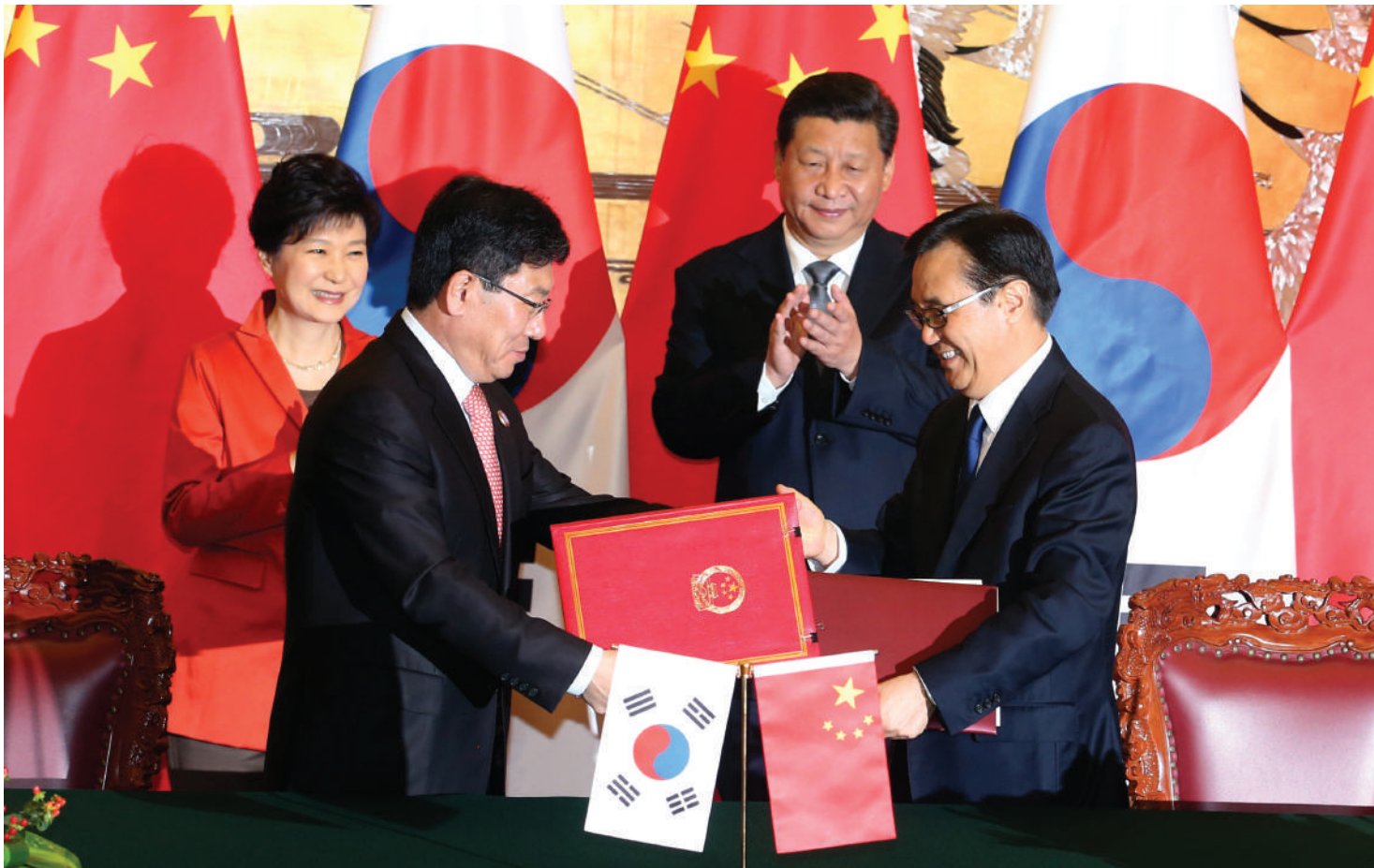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FTA는 한국이 맺은 최초의 FTA로 한국의 FTA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칠레가 선택된 데는 지리적으로도 지구 반대편이며, 계절적으로도 반대인 남반구여서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 이후 양국의 교역량은 4배 이상 증가했다. 한·칠레 FTA 이후 대칠레 자동차수출은 2003년 2만 대에서 2013년 11만 대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 또한 칠레와의 열매가 불면서 와인대중화에 기여한 바 있다. 칠레, 싱가포르, EFTA와의 FTA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이후 ASEAN, 인도, EU, 미국 등 거대시장과의 FTA를 통해 FTA 허브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다.☺

Adieu 2014, Welcome 2015!!

한·중 FTA 협상 실질 타결

협상 30개월 만에 타결...
14억 시장이 열린다

한·중 양국은 11월 4~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수석대표: 한국측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중국측 상무부 가오후청 부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다음날인 11월 10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 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됐다.



11월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FTA 협상 타결 내용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한 뒤 서명서를 교환하고 있다.

한·중 FTA의 의의

1. 제2 내수시장으로의 선점 기회 확보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지난해 4.7조 달러로 2015년 5.7조 달러, 2020년 9.9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정). 또한 총소비 증가는 2008년 15조3,422억 위안에서 지난해 29조2,166억 위안으로 증가했다(세계은행). 한·중 FTA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중 FTA를 통해 대중 수출 연간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대중 수출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 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 활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공세적 이익보다 국내 농수축산물 보호 추구

중국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품목(자동차, LCD 등), 중국내 공급 과잉이 심각한 품목(철강 등)에 대한 공세적 이익보다는 우리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일정기간 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하는 등 최대한 보호했다.

특히,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가 체결한 12개의 FTA 중에서 유례없이 큰 수준(한·미 FTA 0.9%, 한·EU FTA 0.2%)이며,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을 비롯해 주요 농수축산물(고추·마늘·양파·사과·감귤·배·조기·갈치, 쇠고기·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농수축산물 관세철폐율 비교(단위:%)

구분	품목수	수입액
한·미 FTA	98.3	92.5
한·호주 FTA	90.7	98.4
한·ASEAN FTA	62.8	56.2
한·중 FTA	70.0	40.0

3. 비관세장벽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 위한 제도 강화

대중 투자 600억 달러(누계), 대중 기업 2만 개, 대중 교민 50만 명 시대의 요구에 부응,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 해소 및 현지 진출기업 보

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중 주재원 최초 2년(현재 1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적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중국정부 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등을 확보했다.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4.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완성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맺으며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한국, 칠레, 페루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 확보 순위도 현재 칠레(85.1%), 페루(78.0%), 멕시코(63.6%), 코스타리카(63.5%)에 이은 세계 5위(60.9%)에서 3위(73.2%)로 도약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에 이르게 된다(이상 뉴질랜드 제외 시).

FTA 허브 국가로의 부상은 우리가 기체결한 한·EU/한·미 FTA 활용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들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와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 최대 수출대상국, 최대 기업 투자 대상국으로서, 지난해 800만 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고, 매주 800여 편의 항공편이 운항하는 등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다. 한·중 FTA를 기반으로 영화 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방송·시청각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 중국내 엔터테인먼트 합자기업 설립 개방, 관광 분야(해외여행 영업)에 대해 우리기업 우선 고려 약속 등으로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해 동북아 평화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중 FTA의 주요 내용

1. 상품양허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고, 한국의 경우 농수산물물은 과반수가 넘는 60%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했다. 중국측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를 20년내 관세철폐키로, 한국측은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를 20년내 관세 철폐키로 합의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품목의 대폭 개방을 이끌어냈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고급생활가전(밥솥, 믹서 등), 패션 기능성 의류,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 개방을 이끌어냈고, 철강(냉연, 열연, 도금강판 등), 석유화학(프로필렌, 에틸렌 등), 주력 소재도 일부 개방을 이끌어냈다.

반면, 초산에틸, 판유리, 섬유(면사, 모사, 편직제의류), 베어링 등을 양허제외하고 안전유리, 알루미늄박, 면직물, 신발부분품 등을 부분 감축하는 등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농수산업 분야에선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생선(조기, 갈치 등)를 비롯한 주요 생산 농수산물 개방을 차단해 기존 FTA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고, 일부 품목에 한정된 관세 소폭 감축(평균 감축률 20%) 또는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에 한정된 TRQ을 제공하는 등 중국측 관심 품목에 대해 극히 제한적 수준의 시장 접근 개선을 제공했다.

2. 서비스·투자

중국의 법규·제도 정비에 상당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1단계에서 포지티브 자유화방식(서비스)과 투자 보호(투자)를 규정하고, 발효 2년 뒤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이 그간 맺은 FTA 중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양허하는 것이다. 투자 챕터에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 시 보상 의무, 송금보장 등의 투자보호규범을 규정했다.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해 중국 내 투자한 우리 진출 기업을 보호하게 된다.

또한 중국 FTA 최초로 금융 별도 챕터에 합의했으며, 금융 투명성 제고, 금융 관련 ISD 제기 시 금융 당국 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 포함,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도 확보했다. 통신 분야는 투명한 경쟁 보장 장치 확보,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양국 간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이 조성됐으며, 중국이 통신을 별도 챕터로 다룬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기업인 일시입국·체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주재(현재 1년) 확대 및 상용방문자 복수비자 활성화에 합의했다.

3. 규범·협력

한·중 FTA는 중국의 FTA 기체결 FTA 중 가장 많은 22개 챕터를 망라하며 가장 포괄적인 규범과 협력의 내용을 포함했으며, 각종 비관세

장벽(NTB) 해소에 주력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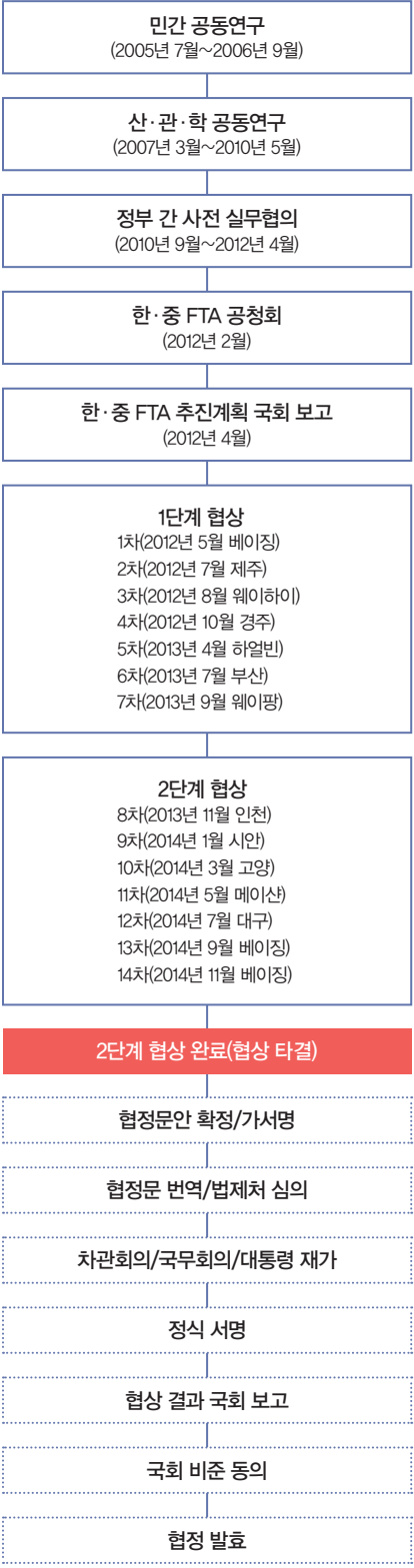
- ①경쟁: 반경쟁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투명성·절차적 공정성·비차별 원칙 등 경쟁법 집행원칙 보장, 공기업 경쟁법 적용 의무.
- ②전자상거래: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전자인증·서명, 개인정보 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이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
- ③위생검역(SPS): WTO/SPS 협정 적용 재확인,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등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여 추가적인 의무부담 배제에 성공.
- ④환경: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준수, 환경법 집행 등 의무를 규정.
- ⑤기술장벽(TBT):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전기용품),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협상개시(전기용품·자동차), 등 시험인증 애로 해소에 성공.
- ⑥무역구제: 한·중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 방지
- ⑦분쟁해결: 분쟁 발생 시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 선택 가능,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 제도를 도입.
- ⑧원산지: 7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특혜 관세사후 신청, 관세위원회 설치 등.
- ⑨통관 및 무역원활화: '48시간 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 특송화물에 대한 별도절차를 마련 등 통관 소요시간 단축에 주력.
- ⑩지적재산권: 방송물의 보호기간 연장(20년→50년), 소리도 상표권으로 보호, 극장상영영화 무단촬영 형사처벌 규정, 지재권 집행 강화.
- ⑪투명성: 협정관련 조치는 사전 공표, 협정 적용 관련 양국의 접촉선지정, 협정 운용에 중대한 조치는 상대방에 통보.
- ⑫경제협력: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 등 양국의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에 합의하고, 세부 분야별 협력강화 계기를 마련.

향후 절차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작업(legal scrub)을 마무리한 후, 올해 말까지 가서명(initiating)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가서명 이후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예정으로,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해 한·중 FTA가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필요 시 산업계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관련대책 수립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 추진 프로세스



한·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

소득 4만 달러 선진 시장 열려...
고급 소비재 수출 기대

지난 11월 15일 한·뉴질랜드 FTA가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200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한·뉴질랜드 FTA는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대한 양국 입장으로 한때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올해 2월 제5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상당한 진전을 달성했다. 양측은 지난 10월 제9차 공식협상에서 잔여쟁점에 대한 상당한 의견접근 달성 후 실무적 협의를 지속, 기술적인 쟁점을 마무리해 FTA 협상 타결 선언에 이르렀다.



11월 15일 뉴질랜드 브리즈번에서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양국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한 뒤 악수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 주요 협상경과

- ▶2009년 1월 한·뉴질랜드 FTA 공청회 개최
- ▶2009년 6월 제1차 협상 개최 후 2010년 5월까지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 제1차~2009년 6월, 제2차~2009년 9월, 제3차~2009년 12월, 제4차~2010년 5월 이후 상품시장 개방 수준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관한 양측 입장차이로 협상 중단
- ▶2013년 7월 한·뉴질랜드 FTA 현황점검회의 개최
- ▶2013년 7월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한·뉴질랜드

- 드 정상회담 개최
- 한·뉴질랜드 FTA의 협상 재개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 확인
- ▶2013년 11월 한·뉴질랜드 FTA 비공식회의 개최
- ▶2013년 12월 한·뉴질랜드 양국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한·뉴질랜드 FTA 공식협상 재개 합의
- ▶2014년 2월 제5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협상 타결 전까지 총 5차례 공식협상, 2차례 비공식협상 개최

- 공식협상: 제5차~2014년 2월, 제6차~2014년 3월, 제7차~2014년 6월, 제8차~2014년 8월, 제9차~2014년 10월
- 비공식 협상: 회기간 협상 2회(2014년 4월, 2014년 9월)
- 제9차 공식협상에서 대다수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 달성
- ▶2014년 11월 15일 G20 정상회의의 계기 양국 정상 간 한·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

한·뉴질랜드 FTA의 의의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로,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를 완료하는 동시에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해 GDP 기준 경제영토를 73.45%(2013년 세계은행 기준)로 확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소위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 회원국(34개국) 중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됐다.

2013년 기준, 뉴질랜드는 우리의 제44위 무역파트너(수출 44위, 수입 41위)로 우리나라는 승용차, 철강, 기계 등 공산품을, 뉴질랜드는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FTA를 통해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제61위 투자대상(누적 4.2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제48위 투자주체(누적 7,000만 달러)다.

뉴질랜드는 1인당 GDP 4만516달러(2013년 IMF 기준, 한국은 2만5975달러)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 선진국으로 기계류, 자동차, 전기제품 등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질랜드가 그간 다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중국, 호주, 아세안, 홍콩, 대만,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한 점을 감안하면, 뉴질랜드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의가 크다.

한·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한·뉴질랜드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등)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물 협력과 인력이동 약속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로, 농림수산물분야에서 뉴질랜드의 선진기술을 공유하고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상품** 뉴질랜드측은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전품목 7년 내 관세철폐, 우리측은 수입액 기준 48.3%를 즉시, 96.4%를 15년 내 관세철폐하기로 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주요 품목들을 살펴보면, 타이어(관세 5~12.5%)는 즉시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5%) 대부분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를 확보해 뉴질랜드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마련했다. 뉴질랜드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를 유지 중이다. 기계·전자의 경우 우리 주요 수출품인 세탁기(관세 5% 즉시철폐), 냉장고(관세 5% 3년 내 철폐) 등 가전제품과 건설중장비(관세 5% 3년 내 철폐) 등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농기계, 농부자재, 식품 가공 및 포장기계, 소형잡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물에서는 우리는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했다. 이 외에도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투자** 양국의 기체결 FTA를 기초로 해 시장을 개방하되, 일부 민감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하는 한편, ISD를 규정하고 뉴질랜드의 국내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원산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

회 설립에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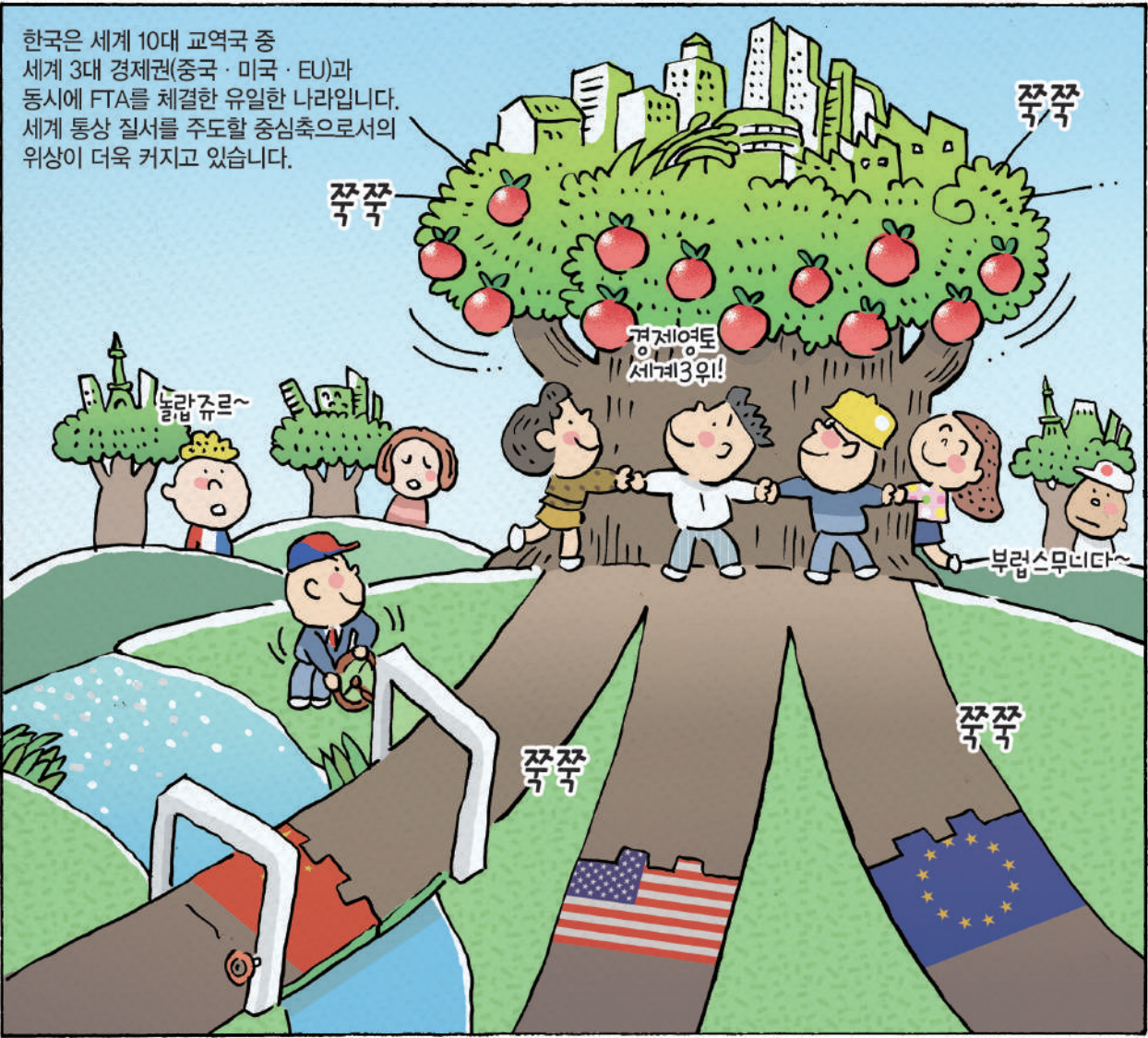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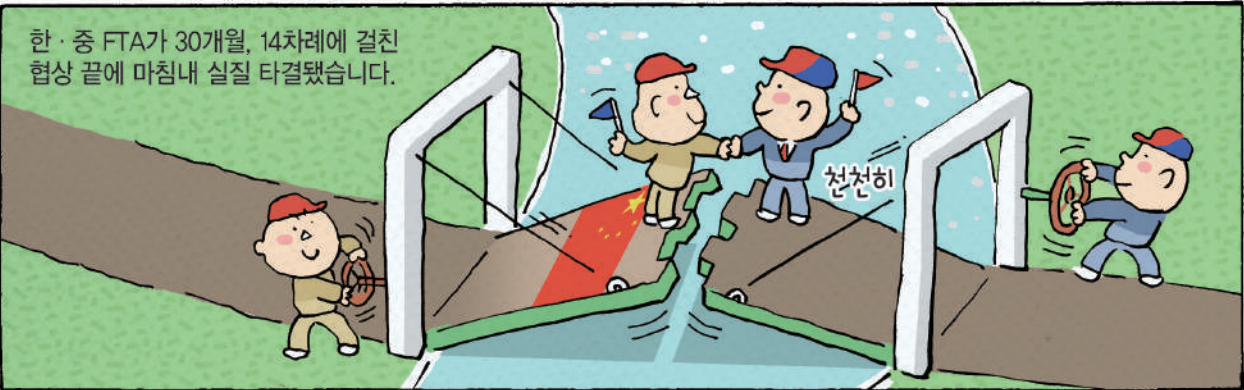
•**정부조달** 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을 상호개방했다. 뉴질랜드는 GPA에서 BOT를 포함하지 않았으나, 한국과 FTA에서는 포함해 개방했다. BOT(Build-Operate-Transfer)란 민간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인력이동**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및 조건 완화, 일시고용입국 및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해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는 현행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어학·교육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고용기간 제한도 완화(동일 고용주 아래 3개월 이상 금지→영구취업만 금지)했다. 또한 일시고용입국(총 200명)과 농축수산업훈련비자(연간 50명)를 확보해 우리 전문인력과 훈련생들의 해외 취업 및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했다.

•**협력** 농림수산물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증진을 약속하고, 뉴질랜드의 선진 농축수산업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로 했다(비용은 양국 공동 부담). 구체적으로는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연간 150명, 8주 간)하는 교류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시청각공동제작**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영화제작 및 후반 제작 시 재정지원, 국제배급 지원, 세제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우리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튼튼한 뿌리가 되다!



COVER STORY

한·중 FTA 특집

>01

한·중 FTA 타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02

한·중 FTA 농업부문의
영향과 과제

>03

중소기업 영향 및
대응방안

>04

한·중 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중 FTA 타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중국도 시장 개방에 대한 두려움 있어...
계량적 성과 넘어선 투자증대 효과 기대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이를 시작한 가장 초기 단계를 제외하고는 주로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시장개방을 통한 통상이익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미국, EU와의 FTA가 단적인 예이며, 최근에 연이어 타결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FTA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FTA의 또다른 중요한 목적인 지역경제통합 추진은 다소 소홀히 다뤄진 면이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제조업 분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가 많아 한·중 FTA로 인한 종합적인 시장개방 효과는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사진은 올해 9월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4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모습.

반면 우리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에 상대적으로 더 치중해 온 것으로 보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메가 FTA 이니셔티브에 일본과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열심인 것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 이전에 논의돼 왔던 'ASEAN+3', 'ASEAN+6' 등의 이니셔티브도 각각 중국과 일본이 강력한 주창자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로 미뤄봐도 그렇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에 의지를 보여 왔다고 하지만 ASEAN과 맺은 매우 낮은 수준의 FTA를 제

외한다면 주로 자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홍콩, 마카오, 대만 등과 경제통합 노력을 기울인 반면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교역상대국과 의미 있는 FTA를 체결하지 못해 온 셈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FTA 체결이야말로 지금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아시아 경제통합이라는 정책목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 셈이다. 이러한 중국의 강한 의지를 감안한다면 지금 타결된 것은 다소 늦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시장개방 효과는 한국에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듯이 우리나라 산업은 중국의 추격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분야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고, 중국도 양국 제조업에서의 이러한 경쟁력 격차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한·중 FTA 타결 내용을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완성차는 물론 많은 기계류, 화학제품 등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개방을 미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추격속도를 우리 산업계가 두려워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일단 따라잡히면 중국산업의 덩치를 이기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왕 해야 한다면 그 타결시기가 빠른수록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도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이왕 중국이라는 대국과 FTA를 체결했다면 어떤 이익이 기대가 되는지 알고 싶은 것은 인자상정이다. 많은 통상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명실상부한 통상 허브로서 발돋움했다는 수사는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장개방 효과는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아직 양국의 최종 관세양허안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양국의 주요 양허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연구원이 계량적 방법으로 추산해본 결과, 제조업 분야에서 FTA 발효 후 매년 약 5억 달러 정도의 무역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화학제품, 자동차, 일반기계, 1차 금속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 우위가 뚜렷한 분야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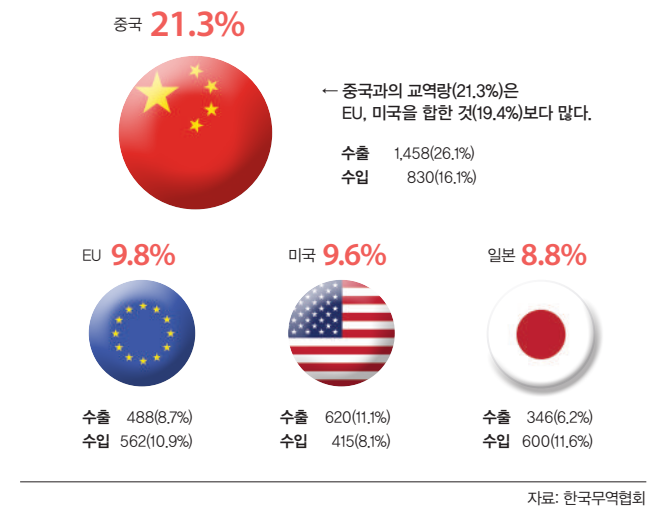
제조업 분야수입증대 효과가 더 큰 분야도 없지 않다. 중국의 추격이 확실하게 이뤄진 분야인 전기장비, 의복·모피제품, 섬유제품, 식료품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대비해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비가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중국 비즈니스 위해 한국에 투자할 외국기업 늘 것

그러나 한·중 FTA는 양국의 교역규모로 봐도 그렇고, 최근 양국 사이에 이뤄지는 다양해진 교류 형태를 미뤄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계량적 수치를 넘어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이뤄진 대부분의 중요한 FTA들이 항상 계량적인 효과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역 투자증대 효과를 가져온 것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對)중국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투자와 연계된 수출의 증대효과가 이번 한·중 FTA 체결로 인해 배가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위에서 언급한 분석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최

한국의 주요국 교역 비중(2013년) (단위: 억 달러)



근 이뤄지는 대중국 투자는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들이므로 과거의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 때보다 훨씬 높은 다양한 산업연관효과를 가져와 대중국 수출을 늘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이번 FTA 체결에 포함된 투자자 보호 강화 조항은 향후 우리 산업의 대중국 투자를 더 촉진하면서 투자와 수출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우리나라가 가진 FTA망이 중국으로까지 넓어지게 됨에 따라 대중국 비즈니스를 펼치려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투자처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이미 FTA를 체결한 미국과 EU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이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

셋째, 양국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또다른 형태의 다양한 교류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중국 소비자가 가진 한국 제품, 특히 한국 식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잘 활용한다면 농가공식품 등의 수출증대도 기대된다.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 등도 한층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문화가 첨가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게 됨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 농업부문의 영향과 과제

쌀 제외 등 농업계 요구 대부분 반영...
우리 농업의 연착륙 기반 마련

한·중 FTA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과는 전혀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만 민감품목이었고 상대국은 민감품목이 없었다. 하지만 한·중 FTA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부 공산품도 민감품목에 포함된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몇몇 공산품을 민감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양국은 ‘단계별 협상구조’를 도입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의 범위와 취급방법 등 ‘협상의 세부원칙(모델리티)’에 대해 먼저 협의했다. 2013년 9월 타결된 1단계 협상 결과 양국은 전체 품목 수의 90% 이상을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해 20년 이내에 관세철폐하고 10% 이내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분감축, 또는 저율의 관세할당량(TRQ) 조건부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초민감품목군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주요 농축산물 85개 중 78개 양허 제외

이번에 타결된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양허안에 의하

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이 초민감품목군으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년 생산액을 집계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이후 첫 번째 타결된 이번 FTA 협상에서 쌀은 향후 어떤 재협상에서도 관세철폐에 대해 논의할 수 없도록 ‘협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밖에 다른 주요 농축산물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돼 결과적으로 농업 전체를 FTA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우리나라 농업계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셈이다.

초민감품목 가운데 현재 국내 자급률이 낮고 중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은 TRQ 조건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며, 사료나 종자용 또는 국내 가공원료용으로 수입하는 품목들은 관세의 일부만 인하하는 부분감축으로 양허해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내 농업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지만 현재 중국산 수입비중이 높은 민감품목은 15년에서 20년까지 장기간 철폐로 양허해 양허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리고 현행 관세율이 낮은 사료용과 종자용 농산물 및 가공식품은 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해 10년 이내에 철폐하며 특히 현행 무관세이거나 3% 이내의 저율관세 품목들은 즉시철폐하게 된다.

이번 타결안의 가장 큰 의미는 향후 우리 농업이 최소한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대두와 참깨, 팥 등에 TRQ가 제공되고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일부 가공농산물은 관세 일부를 감축해 수입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지만, 쌀을 비롯해 대부분의 곡물과 육류, 과일류와 채소류 등 주요 농축산물은 관세철폐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전체의 64%이고, 중국의 관심품목 33개는 TRQ와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됐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FTA로 인한 관세를 인하지 않아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FTA가 발효될 경우 시장개방이 확대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농업기술 진보와 함께 우리나라의 육종 및 재배기술 전수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한·중 FTA로 세계 최대의 인구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양허안에 의하면 채소종자와 잼, 젤리 등은 즉시철폐이며, 딸기(신선), 포도, 냉동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커피(볶음) 등은 10년 철폐로 양허됐다. 우리나라의 수출 유망품목인 김치와 인스턴트면류, 커피조제품 등은 20년 철폐 예정이다.

원산지 규정 홍보와 국산화 노력 제고 필요해

중국과의 FTA 협정 발효를 앞두고 우리 농업이 당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착륙을 위해 발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대두와 팥, 참깨 등은 물론 부분감축 대상인 들깨 등 발작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FTA 협정별 대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을 심사해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국내 대책을 통폐합해 ‘농가소득안정

한·중 FTA의 우리 농수산물 양허 현황

품목군		주요 품목
협정제외		(16개, 0.8억불) 쌀 등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596개, 9.9억불)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생강), 발작물(배추, 당근, 무, 오이, 가지), 인삼류, 과일(사과, 배, 포도, 감귤, 감, 딸기, 수박, 복숭아), 견과류(밤, 호두, 잣, 대추, 은행), 가공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대두유, 설탕, 전분), 조기(냉동), 갈치(냉동) 등 우리 주요 농수산물 품목
	TRQ	(21개, 5.7억불) 대두, 참깨, 팥, 고구마전분, 기타사료, 맥아, 낙지(냉동), 아귀(냉동) 등 대중 수입 품목
	부분감축	(35개, 4.9억불) 김치, 조제양공, 들깨, 꽃게(냉동) 등 국내 산업 보호 필요 품목
민감품목	15년 또는 20년내철폐	(870개, 7.99억불) 산동물(말, 양), 육고기(거위, 기니아새), 가공식품(토마토케첩), 맥주, 연육 등 장기간 보호 필요 품목
일반품목	즉시철폐, 5년내, 10년내철폐	(702개, 6.2억불) 박류, 수수, 사료, 모류, 치어 등 기존 무관세 품목으로서 즉시철폐가 가능하거나 단기간 보호 가능 품목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소득보장보험제도를 현재 시행중인 재해보험과 연계해 도입할 경우 중복성을 줄이고 행정력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의 FTA 국내 대책 지원금 집행 실태와 효과를 분석해 부정 수급과 중복 지급 및 유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 고소득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고품질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국산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한류의 세련된 이미지를 농식품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생산자 단체간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FTA 체결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 발급을 위해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함께 가공농식품 원료의 국산화 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류비 지원과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위주의 현행 농식품 수출지원제도를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발급 지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내 고소득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고품질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올해 9월 20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코리아푸드 페어 2014’ 개막식 행사.



중소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저부가제품·단순가공업종 피해 우려… 기존 FTA 대책 중소기업에 포커싱해야

지난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2005년 민간공동 연구까지 포함하면 10년 남짓한 긴 여정이었다. 그만큼 고려할 것도 계산할 것도 많았다는 얘기가.



대기업보다 소공인·중소기업이 한·중 FTA의 국내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FTA 지원대책을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금전적 보증을 넘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사진은 11월 21일 서울 문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한·중 FTA의 효과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교역의존도와 생산 분업도가 높으니까, 기체결 FTA와 달리 한·중 FTA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제품과 경합관계가 높은 까닭이다. 어쩌면 한·중 FTA는 경쟁력 못지않게 기업규모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종별로는 저부가가치·범용제품이 다수 포함된 업종, 내수기업의 비중이 큰 업종, 단순가공 업종 등에서 저가 중국산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역수입과 그에 따른 산업공동화의 가능성, 최

혜국대우 적용으로 인한 ASEAN 회원국들의 저가 수입품 증가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반면 한·중 FTA는 기술력은 있으나 고관세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그간 중국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 현상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와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중 FTA의 효과는 가감될 수 있다.

2005년 산·관·학 연구 때보다 중국이 훌쩍 성장

현재 공개된 협상결과로만 볼 때에는 타결 수준이 한·

미 및 한·EU FTA에 비해 낮고, 따라서 경제적 혜택이 작을 수 있다. 이 점을 중소기업계도 예견했던 것일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 우려를 표명했던 것과 달리, 최근 실시된 중기중앙회의 설문결과는 다소 긍정적이다. 중소기업의 16.5%가 한·중 FTA 영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14.3%가 부정적, 68.8%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답했다. 현장에서는 한·중 수교 이래 중국산이 국내에 이미 포진해 있으며,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으로 현지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여전히 한·중 FTA의 영향을 예측치 못하고 있거나 별다른 대비책이 없다(6.7%)는데 있다. 만약 업계의 예측이 빗나간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중기중앙회 설문결과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제외한 중국산의 기술·디자인 및 브랜드 경쟁력을 국산 대비 80점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조차 중국산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중 FTA 타결을 앞두고 언론에서는 차이나 임팩트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보도한 바 있으며, 학계와 산업계에서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을 언급하며 기업의 기술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당시, 즉 FTA의 조기타결로 중국 시장의 이점을 심본 활용해야 한다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안일해져 있는 사이, 중국은 이미 많이 커버렸다.

낮은 수준의 협상 결과로 중소기업들 시간 확보

이에,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함께 대처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한·중 FTA의 영향분석과 피해계층 파악 시 업종 내 기업의 분포·특성 등을 고려, 소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정밀하게 진단해내야 한다. 둘째, 무역조정제도의 운영체계 개선, FTA 활용제도의 업종별·지역별 특화 등 기존 FTA 지원대책을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공인·소기업을 겨냥하되, 금전적 보증을 넘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마련(예를 들면, 지역별 특화지원센터 운

한·중 FTA 주요 제조업 양허 현황

품목군		한국측	중국측
민간공동연구	즉시철폐	(5,823개, 414.9억 달러) 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등	(1,258개, 733.4억 달러) 제트유, L형강, 스테인리스열연강판(3mm 미만) 등
	5년 내	(1,113개, 30.3억 달러) 제트유, 플라스틱 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 등	(1,589개, 58.2억 달러) 항공기 부품, 유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제조장비 등
	10년 내	(1,900개, 165.7억 달러) 차체 부품,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LCD 패널 등	(1,849개, 311.6억 달러) 에틸렌, 프로필렌, 충격흡수장치, 냉연강판(0.5~1mm), 도금강판(클래드), 냉장고, 에어컨, 밥솥, 믹서, 여성 코트 및 재킷, 유아복, 헤어핀, 기타 운동기구, LCD 패널 등
민간공동연구	15년 내	(579개, 76.9억 달러) 휘발유, 타이어 등	(840개, 218.4억 달러)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프레스금형기계, TV카메라 부품, 안경렌즈 등
	20년 내	(12개, 26.8억 달러) 축전기, 기어박스, 편직제 의류 등	(369개, 92.2억 달러) ABS수지, 도로, 차량용 축전지, 브레이크, 가정용 정수기, 콘택트렌즈 등
초민간공동연구	부분감축	(37개, 17.6억 달러) 안전유리, 알루미늄박, 면직물, 신발부분품 등	(128개, 99.9억 달러) 리튬이온축전지, 자동기어변속장치, 차체부분품, 선박용 엔진, 음향기기부품, 스킨케어 화장품, 삼푸, 린스 등
	양허 제외	(210개, 28억 달러) 초산에틸, 판유리, 자동차, 면사, 모사, 편직제의류, 베어링 등	(509개, 147.3억 달러) 파라자일렌(PX), 테레프탈산(TPA), 에틸렌글리콜(EG), 자동차,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냉연강판(합금강), 굴삭기, 레이저프린터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영, 업종별 집단 글로벌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과의 분업구조 재편·심화가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추세인 만큼, 중국 기술추격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전략 정비가 시급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의 다수 낮은 수준의 한·중 FTA 협상 결과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쟁력을 정비·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준 측면이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자체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바, 이들이 글로벌 대기업의 가치사슬 상 어디에 위치하는 지를 정확히 파악, 진입을 위한 정보 및 연구개발(R&D)의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FTA는 그 성격상 수혜계층과 피해계층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데, 한·중 FTA의 경우에는 특히 후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개별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저가 중국산에 밀려 생업을 포기하게 되거나, 결과적으로 산업기반이 붕괴된다면 우리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피해계층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전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해줘야 하며, 무엇보다 실(實)경제주체인 중소기업은 자구노력과 함께 활용대책을 통해 FTA의 효과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상중계: 한·중 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소비자 눈높이 높아져...과거의 중국 생각하면 오산

지난 11월 27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미나는 민·관·학이 함께 나서 한·중 FTA 시대의 전략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무려 4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중 FTA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이나 이어졌으나, 청중들 대부분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중 FTA 활용 전략과 중국 시장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환영사 및 축사-한국무역협회·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한·중 FTA 활용을 기대한다”



환영사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중 FTA는 중국이 5대 교역국과 맺은 유일한 FTA이자, 그간 맺은 FTA 중에서도 가장 개방도가 큰 FTA다. 한국은 14억 내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중국은 한국에게 수출입 1위 교역대상이자, 2위 투자대상국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 및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제품의 중국 내 점유율은 9.6%로 1위지만, 최종 소비재의 경우는 3%대 후반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중 가공무역 비중이 48%에 달하기 때문이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중 FTA 활용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가만히 있는다고 FTA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축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중 FTA가 워낙 중요하고 민감하다 보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 협상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복잡한 방정식 속 최적화된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고 본다. 지난해 한국은 선진국을 제치고 중국 시장 내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한·중 FTA 협상 타결로 중국 바이어들의 83%가 한국 제품을 늘릴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혜택이 오지는 않는다. 13년 전 중국과 FTA 논의가 처음 시작됐다. 앞으로 13년 후 오늘의 FTA가 미래 성장동력이 됐다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업인들의 노력을 부탁한다.

1세션-한·중 FTA, 우리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0년 뒤 중국은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

사회 현오석 국립외교원 교수(전 경제부총리)



많은 경제학자들이 향후 10~20년 사이 세계경제의 핵은 중국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2030년엔 미국·일본의 GDP를 합쳐야 중국과 비슷할 것이란 전망도 있고,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향배가 향후 세계경제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FTA는 향후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오늘 세미나는 업계와 학계의 최고 권위자들을 모신 자리다. 나뿐만 아니라 참석자 모두 좋은 지식을 얻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

도록 했다. 결국 한·미 FTA(24개 챕터) 수준에 맞먹는 22개 챕터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중국이 그간 맺은 FTA 중 가장 많은 것이다. 막판까지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중국의 공산품 시장을 여는 것이 관건이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비관세장벽 제거로, 중국의 지역·성(省)별로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시 우리 경제에 도전이나 기회나라는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13년 지난 지금 보면 쓸모없는 걱정이었었고 100% 우리에게 기회였다. 한·중 FTA도 우리 경제에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중 FTA의 영향 및 대응전략

“중국 내 불투명한 절차·규제 해소 기대”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기 전인 지난 10월(9월 22일~10월 31일) 한국무역협회 1,21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수출입 전망에서는 55.2% 기업에서 한국의 대중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 시 가장 큰 경쟁자로는 중국업체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업체를 꼽았다. 한편 중

한·중 FTA 협상 주요 내용

“협상 막판 농산물 보호와 비관세장벽 제거에 주력”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은 2002년부터 한국과의 FTA 협상을 원했었다. 2006년 보시라이 장관이 딜(deal)을 담판짓기도 했다. 한·중 FTA는 될 수 있으면 자유화율을 높이려 했고,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협정이 되

간재와 달리 최종소비재의 경우 일본, 대만업체보다 '제3국'의 대중국 수출전망 답변이 더 많았는데, 이는 차별화된 품질과 브랜드 파워를 지닌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함을 뜻한다. 한편 중국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 절차(2위), 각종 인종 및 기술·환경 규제(6위)로 꼽혔는데, 한·중 FTA로 이러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한·중 FTA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

“한·중 경쟁 심화될 것…틈새시장 발굴해야”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

 한·중 FTA에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보니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받을 영향이 덜 알려진 것 같다. 현재 중국의 제조업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어, 관세인하보다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생산이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따라서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에서 한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양상은 심화될 것이다. 대신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여지도 늘어난다. 세계적인 표준 설정에 있어서 한중의 생산능력과 시장기반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처럼 산업간 분업이 아닌, 중국 시장을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틈새시장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Made for China 시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대중 수출 확대 전략

“중국 진출 원하는 우회 투자 늘어날 것”


임성환 KOTRA Invest Korea 전략지역유통팀장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저우주취(走出去) 밖으로 나가자' 정책을 펼쳤다. 2002년 27억 달러이던 해외투자액은 2013년 1078.4억 달러로 무려 40배나 증가했다. 2013년 누적 해외투자액은 6,604.8억 달러로, 184개 국가에 2만5,400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산업별로는 채굴업, 제조업, 부동산업 순이다.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으로의 투자도 크게 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에 치중되고 있다. 한·중 FTA 이후 중국에 투자하고 싶은 선진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우회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이용해 자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은 증가할 것이다.

2세션-중국 내수시장,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중국이 얼마나 무한한 시장인지 상상해 보라”


사회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대개 이런 세미나에서 오후 세션은 관객 3분의 2는 졸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인 걸 보니 한·중 FTA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인데, 참으로 '흥분된다'. 더 흥분되는 것은 2세션은 1세션에 비해 더 익사이팅하다는 것이다. 오후 세션은 상상력, 가능성의 세상이다. 중국 내수시장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이자, 이를 공략해서 전과를 올리신 분들의 무용담들이다. 중국이 얼마나 무한한 시장인지 우리 모두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

중국시장의 특성과 내수시장 진출 전략

“과거처럼 양적 전략 아니라 고기술 제품 필요해”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

 1992년 한중 수교가 한중경협 1.0시대라면,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며 내수시장을 개방한 것이 2.0시대, 이제 한·중 FTA가 발효되면 3.0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한중경협 3.0 시대의 특징은 기존 성장전략은 한계를 맞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제 인구가 주는 보너스가 한계에 달했고, 개혁보너스를 추구해야 한다.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을 보면 중간재는 12.9%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소비재는 4%에 그칠 정도로 취약하다. 특히 중간재 등은 점유율이 하락세다. 중국 소비재 시장의 특징은 식품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고, 감성과 체험 구매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의 대중화, 여가활동 다양화 및 운동·헬스의 생활화 등이다. 이제는 과거처럼 양적 위주 전략이 아니라 샤오미 같은 증가의 고기술 제품이 필요하다.

생활가전 부문

“기술보다 라이프스타일로 접근한 것이 주효”

이형석 휴롬 중국판매유통 사장


 중국에서 휴롬 주서기는 기술은 좋았으나 가격이 경쟁제품보다 높았다. 또한 중소기업이라 광고비를 많이 못 써 홈쇼핑을 주요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

중국 도시 소비층을 분석해보니, 발달된 대도시 중산층 이상 여성이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컸다. 이는 1993년 중국 진출 당시 만나 결혼한 중국인 아내로부터 얻은 정보다. 그들에게는 기술로 접근하지 않았다. '살만해졌으니 이제 거기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이 뭔가 얘기해 보자'는 식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통했다. 현재 휴롬의 웨이보 팔로어 수는 36만 명이다. 휴롬은 지난해 중국서 61만 대를 판매했고, 올해 113만 대, 내년에는 175만 대를 예상하고 있다.

식품 부문

“소비자 안목 높아져…우리가 알던 중국이 아냐”


최호 대상 화동사업부장(지사장)

 중국의 식품 소비 트렌드를 소개하면, 우선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커피, 건강음료, 과일주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식품안전을 중요시해 생산일, 성분 등을 꼼꼼히 따지는 편이다. 또한 과거보다 외관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많이 따지고, 특정제품 구매 시 반드시 온·오프라인으로 가격을 검색해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모든 구매의 기준은 '나'로 개인주의 성향을 띤다. 즉 자신이 돋보이기 위한 소비를 하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중국인들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한·중 FTA에 따른 식품업계 수출은 점진적 변화가 예상되며, FTA로 인한 인지도 상승으로 중국 바이어들의 수입 확대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관세장벽 등 중국 내 수입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부문

“중국 시장 쉽게 생각했다간 큰 코 다쳐”

최선 미샤(북경에박신화장품 상무 유한공사) 지사장


 중국의 화장품시장 규모는 2012년 36.3조 원으로 한국(7.2조 원)의 5배 규모다. 게다가 연평균 12% 성장하는 시장으로 2017년에는 54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카테고리별 시장규모는 '스킨케어'>헤어>케어>오랄>색조' 순이다. 또한 여성화장품의 증가가 남성화장품과 아동용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유통채널별로는 '백화점>방문판매>온라인>전문점>대형마트>드러그스토어' 순이다. 최근 중국 현지업체들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장기비전 없이 접근했다가는 승산이 없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까르니에와 르블론이 퇴출된 것이 그 예다.

패션·의류 부문

“장기 비전 없으면 후발주자에 시장 뺏겨”


최형욱 이랜드차이나 법인장(CKO)

 이랜드는 1994년 상해법인을 설립해 처음에는 생선을 주로 했으나, 1996년 중국 내 1호 매장을 만들었다. 2000년대부터는 연평균 65% 성장하며 현재 40개 브랜드로 전국 213개 도시에 6,73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는 중국으로 직원을 보내기 전 8년 동안 중국 관련 책을 200권을 읽게 한다. 사전 현지화 작업을 위해 100번의 중국 여행을 해야 한다. 또한 6개월 동안 200개 도시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밟아봐야 한다. 대개 중국어를 잘 하는 직원을 보내기 마련이지만 이랜드는 최고 역량을 지닌 '드림팀'을 보낸다. 중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 상품이 뜨고 2년 내 전국을 커버하지 않으면, 2년 내 카피제품이 생겨 후발주자가 전국망을 가진 사업자가 돼 버린다.

유통 부문

“e커머스 연 558조 규모…진입은 쉽지 않아”

임동성 GS홈쇼핑 상무

 홈쇼핑보다는 중국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2013년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는 3.1조 원 안(약 558조 원)으로 추정되며, 중국 수출입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다. 특히 알리바바의 11월 11일 솔로데이 할인행사에는 하루에 무려 11조 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내가 속한 GS홈쇼핑의 연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한 지 이제 2년째 인걸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이제 중국 시장 진출 시 e커머스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알리바바 등은 슈퍼갑이 되어버려 입점이 쉽지 않다. 대신 6~10위 업체를 이용하면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업체들은 타 업체에는 없는 한국제품을 단독으로 입점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2014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송이실업(대상)

작지만 강한 섬유계의 ‘히든 챔피언’ 세계 최고가 목표

국내 섬유산업이 위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범용 섬유의 위기다. 저임금과 효율성에 기반한 대량생산 방식으로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없지만, 고급품 시장은 해볼 만한 여력이 있다. 대구에 위치한 송이실업은 규모는 작지만 중국 업체가 흉내 낼 수 없는 고품질로 중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히든 챔피언’이다.



1,2 송이실업은 직원 42명 규모의 작은 기업이지만, 저가품으로의 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품질의 원단을 만들고 있다. 3,4 모든 생산품은 숙련된 인력이 직접 꼼꼼하게 품질을 확인한다.

최고 수준의 기술을 담은 명품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아무리 최고의 요리사라 하더라도 고기가 나쁘면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들 수 없고, 아무리 명품 가방이라도 가죽이 나쁘면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값비싼 패션의류에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갖춘 원단이 필요하다. 송이실업이 바로 그런 고품질 원단을 만드는 업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섬유…복제 불가능의 고품질 구현

대구 지하철 2호선 성서산업단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송이실업은, 빨간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과 비슷한 높이의 조립식 건물들 때문인지 공장이라기보다는 주택을 개조한 공방 느낌이었다. 직원 42명 규모로, 이 회사가 만드는 직물은 우리가 흔히 입는 캐주얼 의류들을 만드는 데 쓰인다. 최대 80억 원을 찍었던 매출은 올해 65억 원을 바라보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비중은 반반이다.

지면의 단체사진에서 직원들이 들고 있거나 마네킹에 걸친 옷들이 송이실업의 직물을 사용한 것들이다. 대기업 계열 자사, L사 등을 비롯한 유명 의류업체에 공급되며, 중국 고급 패션업체들로도 수출된다. 이 회사의 원단으로 만든 옷을 입은 연예인 전지현의 사진이 사장실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국내 모 여성복 브랜드의 홍보물이다. 중국에서는 이 사진을 보여주면 일단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다고 한다.

중국 수출 규모는 약 20억 원이다. 얼핏 '중국에서 한국으로 저렴한 원단을 수입하는 것이 대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항 송이실업 대표(54)는 “중국 상위 5%만 해도 7,000만 명 이상이다. 이 시장이 원하는 고급품은 중국에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제품이 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중산층들의 소득이 급속히 늘어난 것이 최근 2~3년 사이의 일이다. 중국은 아직 소량다품종의 고급품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손 대표가 “우리 제품을 아직 중국에서 카피(copy)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품질 수준이 높은 편이다.

손 대표는 섬유를 수출하는 무역업체에 근무하다 1991년 제직기 6대로 자본금 3,000만 원 규모의 송이실업을 설립했다. 당시 자가드 원단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트렌드를 감지하고 자가드 제직기를 들여와 사업을 시작했다. 회사 이름은 대구 팔공산에서 자라는 송이의 향이 너무 좋아 나중에 사업을 하면 이름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해왔던 데서 나왔다.

자가드 원단이란 실의 짜임을 이용해 무늬가 들어간 원단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만들어진 원단에 무늬를 찍는 프린트와는 다르다. 사용하는 원사(실)를 바꾸면 재질은 달라지므로, 무늬에 더 방점을 찍는 구분법이다. 일반 제직물보다 꼼꼼한이 요구되는 제품이라, 품질관리가 관건이다. 창업 첫 해 제직기 6대로 3억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는 일반 제직기(Air Jet Loom) 48대, 자가드 제직기(Jacquard Rapier Loom) 14대, 개발용 제직기(3-Beam Rapier Loom) 1대를 갖추고 있다.

기존 제품을 한·미 FTA 관세철폐 품목으로 개발

공장으로 들어서자,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제직기들의 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최종 제품의 품질은 만드는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 지방에 위치한 영세사업장에는 대개 이국적인 모습의 근로자들이 눈에 띄게 마련인데, 송이실업에는 외국인노동자가 없었다. 가격보다는 품질 경쟁이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모든 원단은 감긴 롤을 거꾸로 펼치면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한다. 이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량률은 떨어지고 품질은 높아진다.

이런 고비용 생산 과정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미국 수출 규모는 약 12억 원이다. 송이실업은 미국 주요 수출품 중 한·미 FTA 즉시 활용이 가능한 유사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 개발을 시도했다. 주요 생산품인 합성필라멘트 직물(HS 5407.52)의 2014년 미국 수출관세는 10.4%지만(2021년 0%), 합성스테이플 직물(HS 5512.19)로 원재료를 바꾼 뒤 관세 즉시철폐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관세율 7%인 합성필라멘트 편직물(HS 6006.32)을 비스코스레이온 편직물(HS 6006.42)로 바꿔 관세 즉시철폐를 적용받았고, 폴리에스터 직물(HS 5407.69)은 폴리에스터·모달 혼용 직물(HS 5516.22)로 바꿔 최고 40%의 반덤핑관세를 피해갈 수 있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이용성 소장은 “최종 제품의 품질은 변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체 재료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며 “한·미 FTA 세율을 분석해 관세철폐를 받을 수 있는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제품 수출 시 FTA 적용을 위해 품목분류와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실무를 익히는 것이 FTA 활용 1.0, 원재료 공급선을 한국산으로 바꿔 FTA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FTA 활용 2.0이라고 한다면, FTA 적용이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FTA 활용 3.0이 아닐까. 송이실업의 부단한 노력은 ‘2014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해 보였다. 손 대표는 “향후 유명 글로벌 브랜드 납품을 목표로 기술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수출농업 현장탐방: 용평 여름딸기

까다로운 검역 ‘오케이’...일본 제과업체서 ‘러브콜’

용평 여름딸기 재배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11월 28일이었다. 마침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기온이 뚝 떨어졌다. 엄동설한에 ‘여름딸기’라고 하니 감이 오지 않았다. 궁금함을 풀고서 오전 7시 경의선 곡성 역에서 사진기자와 함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으로 향했다. 오전에 선별작업을 완료한다고 해 서둘러 나선 길이었다.



작물 재배는 땅값이 싼 곳에서 이뤄지다 보니, 대개 첩첩산중이다. 용평면의 산길을 따라가자 이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가건물이 나타난다. 가건물이라고 하지만, 냉동보관창고 등 고가의 시설을 완비한 선별장이다. 안내를 맡은 김정옥 에이오케이에프앤비(AOKAY F&B) 대표(44)가 슬리퍼로 갈아신기를 요청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농장’이라기보다는 ‘실험실’ 같았다.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들은 하얀 위생복·위생모·장화를 착용하고서 딸기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포장용 박스에 담고 있었다. 딸기를 자세히 살펴보기 좋도록 작업대에는 환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다.

6~11월 재배, 케이크용으로 주로 사용

박스에 가지런하게 담긴 딸기들을 보니 마치 플라스틱으로 성형한 듯 정형화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마치 광택제를 바른 것처럼 표면이 반짝이는 모습이 더욱 인공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광택은 딸기 자체가 지닌 특성이다. 영국에서 종자를 수입해 온 이 딸기의 용도는 생크림 케이크의 장식이다.

딸기 몇 개의 맛을 봤다. 식감은 단단하고 신맛이 강했다. 그러나 이는 유통을 고려해 완전히 익기 전에 재배했기 때문이다. 이날 아침 재배되어 선별 및 포장작업을 거친 이 딸기들은 저온창고에서 보관된 뒤



1, 2 제과용으로 사용되는 여름딸기는 재배과정에서부터 흙이 묻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된다. 지상으로부터 1m 이상 높이에서 재배되며, 바닥은 흙이 노출되지 않도록 덮여 있다. 3 선별장에서도 위생복을 착용한 작업자들이 청결을 유지하며 딸기를 포장한다. 까다로운 일본 제과업체도 용평 여름딸기에 러브콜을 보낼 정도다.

다음날 아침 트럭으로 배달된다. 고객사에서 딸기를 이용해 케이크를 만들어 다시 배달이 이뤄지므로 일반 소비자들은 수확 후 3~4일 뒤 딸기를 맛보게 된다. 그 사이 숙성이 진행돼 단맛이 올라오고 색상도 조금 더 붉어질 것이다. 김 대표는 “완전히 익히면 14브릭스까지 나오지만, 강도 유지를 위해 80%선에서 재배한다”고 말했다.

이 딸기들을 여름딸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에서 11월까지 재배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딸기는 겨울부터 봄까지 재배되는 겨울딸기다. 겨울딸기는 기온이 섭씨 20도가 넘어가면 재배하지 못하지만, 여름딸기는 재배가 가능하다. 여름딸기는 이르면 5월 말부터도 시작되며, 늦게는 12월 중순까지도 재배된다. 여름딸기에도 여러 품종이 있지만, 제과용 수요가 대부분이라 맛보다는 형태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단맛보다 신맛이 조금 강하지만, 생크림케이크가 워낙 달기 때문에 오히려 상큼한 딸기맛이 조화가 더 잘 된다”고 설명했다.

바로 옆 재배장으로 이동했다. 일반적인 겨울딸기와 달리 지상 1m 위에 묘대를 설치했다. 또한 바닥은 모두 흙이 보이지 않게 덮여 놓았다. 딸기는 물이 닿으면 쉽게 물러져 제과 제품에는 쓰지 않고 사용되기 때문이다. 땅에서 재배하게 되면 흙이 묻기 때문에 위생검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별장에서도 위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재배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과채류를 2~3모작할 수 없어 재배기간 내에 최대한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농민들, “다른 농사보다 낫다”는 반응

농산품 수출업체 에이오케이에프앤비가 처음 여름딸기 재배·수출을 시작한 것은 2001년 김 대표의 부친과 일본의 유명 제과업체 회장과 인연 때문이다. 한국을 방문한 제과업체 회장이 한국의 딸기를 맛본 뒤 여름딸기 재배를 할 의향이 없는지를 문의한 것이다. 한국보다 따뜻

한 일본에서 여름딸기는 기후가 서늘한 홋카이도에서만 재배되는데, 공급이 늘 부족해 비싼 가격에 사야 했었다. 사업성을 알아본 김 대표는 농민들과 함께 홋카이도를 방문해 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 게다가 일본 제과업체가 5년간 구매를 약속했다. 판로가 확실하다 보니 강원도에서도 적극 나서 시설자금 지원을 했고, 내친김에 일본 제과업체와 강원도청이 양해각서(MOU)까지 작성했다.

2002년 1,650㎡ 규모로 시험재배에 성공한 뒤 대관령에서 2만6,500㎡ 규모로 확장해 첫 수출을 시작했다. 일본에서도 기술자를 보내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현재는 양구, 장평, 대관령에서 20여 농가가 총 11만5,500㎡를 재배하고 있다. 재배농가들은 “다른 농사보다 낫다”는 반응이다. 권혁남 용평여름딸기영농법인 총무(56)는 “계약재배로 가격이 고정돼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좋은 물건만 만들 거만 하면 파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에이오케이가 수출한 여름딸기는 2009년 350만 달러로 최대를 기록했었지만, 불황과 엔저 영향으로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대신 국내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공급하고 있어 내수와 수출 비중은 반반이다. 지난해는 날씨가 더웠고 비가 많이 와서 최저 생산량이었지만 올해는 조금 나은 수준이다.

용평 여름딸기를 보면 농업 또한 일반 산업과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찾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름딸기가 소문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김 대표는 “지금 2~3개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그게 뭔가”라고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 여름딸기는 지금은 일본에만 수출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의 소득수준이 늘고 디저트 소비가 늘어난다면, 일본산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위생이 철저한 한국의 여름딸기가 새로운 호황기를 맞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유무역의 역사: ⑩무역기술장벽(TBT)

관세장벽 낮아지자 기술장벽 강화... WTO 출범 이래 4배 이상 증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제 무역 흐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표준(Standard) 및 적합성판정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를 가리킨다. 국가 간에 서로 다른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등이 채택돼 적용됨으로써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기술규정과 표준은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의 특성이나 관련 공정, 생산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술규정의 이행은 강제적인데 반해, 표준의 이행은 자발적인 것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표준의 경우 준수자체가 자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표준화기구나 단체 등에서 설정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차별적인 선택에 의해 실질적으로 강제성이 부여됨으로써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적합성평가절차는 특정 상품이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관련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양국간 기술규정이나 표준 등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에서 중복적인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검사 지연, 불투명한 절차, 비용 과다 등이 흔히 기술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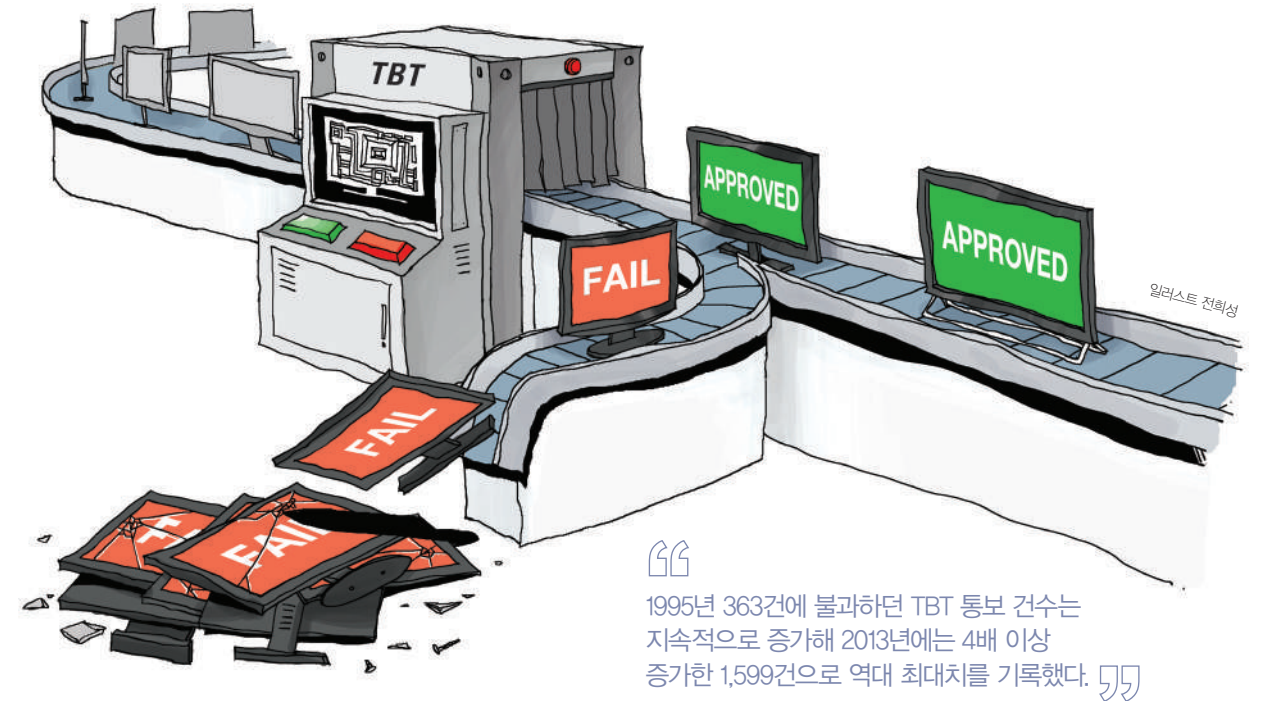
선진국은 높은 기술요건, 개도국은 검사 지연 활용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 이래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협상을 통해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나 수입수량제한 등은 상당 부분 축소돼 왔다. 반면 TBT와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들(NTBs: Non-Tariff Barriers)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TBT는

경제발전 수준과 관계없이 도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 또한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TBT가 선진국에서는 과다한 기술요건, 상이한 기준의 적용, 상품표시 부착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시간의 소요, 불투명한 인증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상품이 외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술장벽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증 및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인력의 부족으로 검사가 지연되거나 인증마크 획득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등이 있다. 높은 검사비용, 과다한 표본 조사 등으로 인해 상당한 초과비용이 드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겪는 기술장벽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상품표시 부착과 관련해 자국어 표기의 요구와 표기형태 및 방식 등 까다로운 요건도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인증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따른 중복 검사,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 요건,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 동일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표준의 적용 등의 문제도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흔히 직면하는 기술장벽이다. 우리 상품에 대한 외국의 기술장벽은 특정한 품목에



1995년 363건에 불과하던 TBT 통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4배 이상 증가한 1,59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정되지 않고 식품에서부터 자동차, 건설자재, 타이어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FTA를 통해 TBT 장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GATT 체제 발족 이래 TBT가 세계 주요 교역국들의 현안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1979년 4월 제네바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GATT TBT 협정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표준의 도입을 통해 세계 무역의 조화를 지향하고 통보의 의무나 질의처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협정 채택 당시 가입국은 미국, 일본, EC 등 38 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1980년 10월에 가입했다.

이후 1995년 GATT에서 WTO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GATT TBT 협정이 WTO TBT 협정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내용이 강화됐다. 중앙, 지방, 비정부 기관과 임의 규정인 표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종전의 권고수준에서 더 나아가 강력한 법적 체제로 전환했다. WTO TBT 협정은 회원국이 기술규정이나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정 또는 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회원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통보하는 기술장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363건에 불과하던 TBT 통보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4배 이상 증가한 1,59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FTA에서도 TBT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FTA 협상에서는 적합성평가결과의 상호인정과 적합성평가 기관의 개방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통신키기 MRA(상호인정협정)의 범위가 기존의 시험성적서 수준에서 제품인증서의 상호 수용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인증기간이 기존 10일에서 5일로, 비용은 인증 건당 약 15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 또한 한·중 FTA 타결로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전기용품),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협상 개시(전기용품, 자동차 부품), 허가 신청 절차 시 내국민 대우 부여(화장품, 의약품) 등을 통해 시험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TBT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WTO를 통해서든 FTA를 통해서든 TBT 규제로 인한 장애를 지속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의 FTA: ⑩멕시코의 FTA 추진동향

중남미에서 아시아로 FTA 전략 확장 중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시작으로 여러 중남미 국가와 FTA를 맺어 왔다. 최근 다자 중심의 FTA를 추진하는 경향이 심화되며 중미 5개국과의 통합 FTA, 태평양동맹 등을 추진해왔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12개국 중 하나로 협상 타결에도 힘을 쏟는 모습이 엿보인다. TPP가 타결되면 그동안 중남미지역에 치우쳤던 멕시코의 FTA 네트워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며 경제통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NAFTA 가입, 대외개방정책의 신호탄

멕시코는 적극적 대외개방정책의 하나로 FTA를 추진해왔다. 1980년대 이전 멕시코의 대외전략은 수입대체산업화에 머물고 있었다. 산업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펼치며 제조업 부문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이는 한동안 멕시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멕시코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산업고도화에 실패하고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됐다. 여기에 외환위기까지 겹치자 멕시코는 1982년 모라토리엄(대외채무불이행)까지 선언할 정도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멕시코가 택한 것이 바로 무역자유화정책이다. 기존의 보호주의정책에서 벗어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에 이르는 전 산업 분야의 개방이 이뤄졌고, 이러한 흐름에서 미국, 캐나다와의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하게 됐다. 멕시코는 NAFTA를 통해 멕시코 전체 교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제전반의 개혁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즉, 멕시코의 NAFTA 가입은 대외정책 전환의 대표적 상징이다.



발효된 FTA 14개 중 10개가 미주 국가

멕시코는 NAFTA 이후에도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나갔다. 특히, FTA 추진 과정에서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를 중심으로 FTA를 체결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NAFTA 발효 직후인 1995년에는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콜롬비아 3개국과 각각 FTA를 발효했고, 이어서 니카라과(1998년), 칠레(1999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이상 2001년), 우루과이(2004년), 페루(2012년) 등 주로 중남미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FTA를 맺음으로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갔다. 물론 이들과의 FTA 이외에도 이스라엘, EU(이상 2000년), 일본(2005년)과도 FTA를 맺었지만 현재 발효된 14건의 FTA 중 10건이 미주 국가와의 FTA로 집중되어 있다.

또한 멕시코는 다자간 FTA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는 첫 FTA인 NAFTA에서 미국, 캐나다와 3자 간 FTA를 체결한 바 있고, 이후에도 G3¹⁾ FTA(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 노던 트라이앵글 FTA(Northern Triangle FTA: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FTA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나아가 최근에는 중미지역에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양자간 FTA를 하나의 FTA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중미 FTA(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5개국 포함)을 발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중남미 지역의 핵심 경제블록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역시 멕시코의 다자 간 FTA 추진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를 필두로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대외개방에 적극적

인 중남미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한 태평양동맹은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공동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의 전통적 경제공동체인 MERCOSUR(‘메르코수르’로 흔히 불림)²⁾가 역내교역 중심의 통합을 이루려는 태도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적극적인 개방 추진



1982년 모라토리엄(대외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로 경제위기를 겪었던 멕시코는 1994년 미국·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발효하면서 경제전반의 개혁을 이뤄 나갔다. 사진은 올해 초 NAFTA 2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에서 발언하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두 경제공동체가 서로 경쟁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11월에는 태평양동맹과 MERCOSUR가 한 데 모여 경제통합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중남미 통합의 외연이 더욱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TPP 통해 경제통합 저변 확대

멕시코는 2012년부터 TPP³⁾ 협상에도 참여하며 경제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멕시코는 FTA 추진에 있어 중남미 국가에 치우치는 양상을 보여왔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국가와의 FTA가 전무한 실정이다. 과거 한국,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멕시코가 양자 FTA보다는 TPP 등 다자 중심의 FTA 정책을 펼치고 있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다자 FTA 정책의 중심에는 TPP가 있다. TPP가 타결된다면 멕시코는 기존 FTA가 포괄하지 못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과 더불어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함으로써 FTA 네트워크를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G3(Group of Three) FTA: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3개국(G3) 간 FTA였지만 2006년 11월 베네수엘라의 탈퇴로 멕시코, 콜롬비아 양국 간 FTA로 가능함.
2) 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5개국이 준회원국, 멕시코가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음. 회원국 간 역내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
3)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현재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⑩의류

의류는 61, 62류에 속해... 남성·여성용에 따라 ‘호’ 달라져

섬유 및 의류제품은 FTA별 원산지기준이 매우 상이하고 복잡하며, 의류의 유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조금씩 변경되거나 예외사항이 적용되기도 한다. 특히, 섬유 및 의류제품의 FTA 활용에 있어 품목분류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업계에서 통용되는 제품의 분류와 관세가 적용되는 관세율표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류 제품은 원료에서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치며 걸감과 안감, 재봉사, 액세서리 등 기타 의류부속품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제품으로, 주로 HS 61류와 62류에 분류되는데 전자에는 편물제의 것이 후자에는 직물제의 것이 분류된다. 이들 두 류에 대한 HS 4단위 호의 체계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특정 의류나 의류부속품의 경우 편물이나 직물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어 있기도 하다.

남자, 여자 및 유아용 의류

HS 61류와 62류에 분류되는 의류는 남성용인지 또는 여성용인지에 따라 4단위인 호와 6단위인 소호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HS 품목분류상 전면이 오픈되어 원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 된 제품(예: 남자재킷)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반면 단추 등으로 전면이 오픈되고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된 제품(예: 여자재킷)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만약,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된 것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남성용 의류인지, 여성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예: 지퍼로 전면이 오픈되는 남녀 공용의 재킷)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가 해당되는 세번에 분류된다. 그밖에 신장이 86cm 이하의 어린이용의 의류는 별도로 마련된 유아용 의류(HS 6111호 또는 6209호)로 분류된다.

최근 쌀쌀해진 날씨로 코트나 패딩점퍼 및 패딩조끼를 입기 시작했다. 오버코트나 반코트는 이러한 기후에 대비해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 것으로 편물제의 경우를 살펴보면 HS 4단위에서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 분류(남성용—HS 6101호, 여성용—HS 6102호)되고 있으며 6단위 이하는 재질별로 분류되고 있다.

패딩점퍼나 패딩조끼는 오리털이나 거위털, 또는 합성섬유 패드를 걸감과 안감 사이에 넣고 봉제한 의류로, 직



남성용 패딩점퍼 및 조끼는 HS 6201.9호에, 여성용 패딩점퍼 및 조끼는 HS 3202.9호에 분류된다. 6단위 이하 세분류는 재질별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패딩 오버코트 및 반코트의 경우 일반적인 오버코트 및 반코트와 같은 세번(남성용—HS 6101호, 여성용—HS 6102호)으로 분류된다.



태권도복, 수영복, 스키복 등의 스포츠 특수의류는 HS 6211호에 분류된다.



넥타이류는 의류부속품으로 관세율표상 편물제의 것은 HS 6117.80호에, 직물제의 것은 HS 6215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6단위가 결정된다.



방직용 섬유제의 안면 마스크는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HS 6307호에 분류된다.

물제를 기준으로 보면 패딩점퍼 및 패딩조끼 역시 HS 4단위에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 분류하고 있으며, 남성용 패딩점퍼 및 조끼는 HS 6201.9호에, 여성용 패딩점퍼 및 조끼는 HS 3202.9호에 분류된다. 역시 6단위 이하 세분류는 재질별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패딩 오버코트 및 반코트의 경우 앞의 오버코트 및 반코트와 같은 세번으로 분류된다.

한편, 의류제품이지만 보온효과가 가장 좋은 동물의 털을 표면으로 한 방한용 의류인 천연 모피의류는 HS 4303.10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방직용 섬유(양모, 합성섬유)를 가죽이나 직물에 모피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접착·봉합해서 만든 인조 모피의류의 경우는 HS 4304.00호에 분류된다.

특수의류 및 의류 부속품

몸의 앞부분을 가리기 위해 보호용으로 입는 앞치마나 성직자가 입는 제복, 공장근로자들이 입는 작업복, 그리고 태권도복, 수영복, 스키복 등의 스포츠 특수의류는 HS 6211호에 분류된다. 다만, HS 6211호는 직물제의 제품에 해당되며, 편물제 제품의 경우 체육복(운동복), 스키복과 수영복은 HS 6112호에 분류되며 나머지 특수의류는 HS 6114호에 분류된다.

장식요소가 적은 남성의류에서 중요한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넥타이는 목이나 칼라 둘레를 매는 띠 모양의 섬유 제품이다. 넥타이류는 의류부속품으로 관세율표상 편물제의 것은 HS 6117.80호에, 직물제의 것은 HS 6215호에 분

류되며 재질에 따라 6단위가 결정된다.

형태적인 면에서 천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가장자리를 올이 풀어지지 않게 가공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제품인 손수건과 스카프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손수건이 오염된 부분을 닦아내는데 사용되는 것인 반면 스카프는 방한용이나 장식용으로 목에 감거나 머리에 쓰기도 하는 제품이다. 관세율표상 직물제 손수건과 스카프의 경우 크기로 구분하고 있어 각 변의 길이가 60cm 이하인 것은 HS 6213호의 손수건으로 분류되며, 어느 한 변이라도 길이가 60cm를 초과하는 경우 HS 6214호의 스카프로 분류되고 있다.

면봉 및 부직포제 옷커버 등 기타 제품

품목분류상 다른 곳에 딱히 분류되지 않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 제품은 HS 6307호에 분류하고 있다. 귀 후비개용, 병원에서의 소독 등에 사용되는 면봉은 목재봉이나 플라스틱봉의 양끝이나 한쪽 끝에 탈지면을 곁게 감아 부착시킨 것으로 목재봉은 지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직용 섬유제 물품으로 보아 HS 6307호에 분류된다.

보통 부직포 재질로 만들어 의류보관용으로 사용하는 일명 옷커버(Cloth cover)는 관세율표에서 설명하는 의류를 넣는 대(garment bags)에 해당되므로 HS 6307호에 분류된다.

먼지나 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으로서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제의 안면 마스크 역시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HS 6307호에 분류된다.☞



사후검증 따라잡기: ⑩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자료 구성III

원산지 판정은 원산지결정기준과 BOM을 중심으로 설명

이번 호는 지난호에 이어 계속됩니다.

※지난호 순서

10월호-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자료 구성I

1. 수출자/제조사 소개
2. CBP Form 28
3. 물품정보 기재
4. 운송관계

11월호-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자료 구성II

5. 원산지 충족여부 증명
 - (1)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 (2) 제조공정 및 생산기록

5. 원산지 충족여부 증명(계속)

(3) BOM(Bill of Materials: 소요자재명세서)

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용하든 소요원자재명세서(BOM)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증빙자료다. 과월호에서 많이 다뤘으므로 자세한 설명보다는 다음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익해 작성하도록 한다.

- ①투입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반영
- ②각 원재료의 HS 코드 및 원산지정보 기재
- ③역내산 원재료의 경우 원산지에 대한 추가 증빙 필요

소요부품(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

☐ 완제품, 용변 및 용명(Description of Goods): Oil Filter
☐ HS Code: 제8421.23호
☐ 모델명(Model Name): KTC-01
☐ 적용할법(Applicable FTA): 한·미 FTA (KOREA-US FTA)
☐ 원산지결정기준(Rules of Origin): CTH
☐ 용재료 사용내역(List of Materials)

순번	자재번호	자재명	세관번호	원산지	소요량	단위	단가	가액	공급처	입증서류	영향력	비고
순번	(Part Number)	(Part Name)	(HS Code)	(Origin)	(Qty)	(Unit)	(Unit Price)	(Value)	(Supplier)	(Document of Proof)	(Supplier's Tel. No.)	(Remarks)
01	71-0012	오일 필터	8421.23	USA	1	EA	60	450	미국	원산지확인서	010-123-4567	국내공급
02	84-1023	헤빙	8421.23	USA	1	EA	270	2700	미국	원산지확인서	010-123-4567	국내공급
03	99-1000	필터	8421.23	USA	1	EA	120	1200	미국	원산지확인서	010-123-4567	국내공급
04	12-0000	오일 필터	8421.23	USA	2	EA	24	240	미국	원산지확인서	010-123-4567	국내공급
05	19-0101	솔리드	8421.23	USA	1	EA	100	1000	미국	원산지확인서	010-123-4567	국내공급
06	19-1000	필터	8421.23	USA	1	EA	100	1000	미국	원산지확인서	010-123-4567	국내공급
07	19-0000	Cover	8421.23	USA	1	EA	10	100	미국	원산지확인서	010-123-4567	국내공급

작성일(Date): 2014. 12. 01.
작성자(Declarer): KFTA 오토모티브(주) 과장 김과장

④명확한 공급자 정보

⑤생산관련 서류와의 일치성(품번, 로트(LOT) 번호 등)

(4)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원산지결정기준과 BOM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각 원재료의 목록, HS 코드 및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판정 설명자료를 구성하고,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각 원재료의 목록, 가격 및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자료를 구성한다.

첫째, 판정에 사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을 간략히 언급한다. 둘째, 세번변경인 경우 각 원재료의 HS 코드가 완제품의 HS 코드로의 변경을 충족함을 표시 해 주고,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역내산 원재료비 총합, 역외산 원재료비 총합 및 직접법, 공제법 등에 따른 계산 과정을 기재한다. 셋째로, 원산지가 협정 규정 등에 의해 원산지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역내산 물품임을 확정한다.

원산지 판정 예시

D. Conclusion

- i) Applicable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 CTH
- ii) Summary of origin determination

Material	HS Code (6digits)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720990	Meet the requirement
*****	732690	Meet the requirement
*****	560313	Meet the requirement
*****	320890	Meet the requirement
*****	392690	Meet the requirement

The goods in question are manufactured in Korea and satisfy the criteria for tariff classification. Given the statements above, the goods meet the requirements provided in HTSUS General Note 33(b)(ii) and are therefore eligible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 UKFTA

- Please see the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Attachment #16) and
- UKFTA Certificate of Origin attached (Attachment #17)

이상 3회에 걸쳐 한·미 FTA 사후검증 시, 원산지 소명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목차화하면 다음과 같으며 각 목차에 삽입돼야 할 내용과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짚지어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참고해 검증을 받은 경우 대상 물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미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자료 구성 내용

(10~12월호 연재 내용을 총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수출자/생산자 정보

- **기재정보** 회사명, 주소지, 홈페이지 주소,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 내역, 대표자, 임직원 수, 담당자 정보(이름, 직급, 연락처 등), 회사소개(연혁, 주요 생산품,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회사 또는 공장 전경 사진.
- **첨부자료** 사업자등록증(영문), 공장등록증(영문), 기타 회사 소개자료.
- **작성목적** 수출자/생산자가 가상의 회사가 아니며 한국에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임을 설명. 또한 주요 생산품과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검증 담당자에게 회사의 배경지식을 알리는데 있음.

2. 정보제공요청서

- **기재정보** 검증 개요, 원산지소명관련 CBP의 주요 요청 내역.
- **첨부자료** CBP Form 28(이하 'CF 28').
- **작성목적** 미 세관에서 해당 선적건에 대한 원산지 소명을 위해 요청한 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하겠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소명자료의 도입부로 사용됨. 또한 받은 CF28은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제출돼야 하므로 수출자가 직접 CF28을 받은 경우 첨부해 답변함.

3. 제품의 품목분류 및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

(1) 품목정보

- **기재정보** 검증대상품목에 대한 제품정보,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 증빙자료.
- **첨부자료** 물품 카탈로그, 물품 사용설명서, 품목분류사전심사 자료 등.
- **작성목적** CF28의 13번 항목에 대한 답변이 됨과 동시에, 검증 대상 품목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이뤄 졌음을 소명. 품목분류의 정확성은 원산지 검증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 등 수행된 주요 관세행정에 대한 정확성의 밑바탕이 됨.

(2) 원산지 결정기준

- **기재정보**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사용된 원산지 결정기준.
- **첨부자료** 제품 HS Code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재된 협정문, 또는 GN33.
- **작성목적** 원산지 판정을 위해 협정 및 General Note에 기재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준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3) 제조과정

- **기재정보** 물품 제조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물품 제조 이력.
- **첨부자료**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생산기록 등.

- **작성목적** 제품의 실질적 변형과정이 한국에서 이뤄졌음을 소명.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에 대한 요청의 대응자료로 사용.

(4) 소요자재명세서

- **기재정보**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목록으로, 각 원재료에 대해 HS 코드, 원산지, 단가 및 공급처 정보를 기재.
- **첨부자료** BOM, 역내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자료(원산지확인서 또는 제조자진술서 등).
- **작성목적** 실질적인 원산지 판정의 기초 자료로써, 사용된 원재료 내역을 토대로 세 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소명할 기본 정보로 제공됨.

(5) 제조원가내역

- **기재정보** 원재료 구매내역, 제품 원가 구성내역 등.
- **첨부자료** 구매원장, 원재료수불부, 기타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 **작성목적** 특히, 부가가치기준으로 판정한 경우 원재료 및 제품 단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원재료에 대한 구매 이력은 제조자가 원재료를 투입해 완제품을 실질적으로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기도 함.

(6)판정(원산지 결정)

- **기재정보** 원재료 구성내역 요약 및 판정 결정문
- **첨부자료**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 등
- **작성목적** 제조과정, 소요자재명세서, 제조원가내역 등을 통해 한국에서 제조됐음이 설명되는 검증 대상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 역내산 지위를 가짐을 설명

4. 원산지와 관련된 추가 정보

- **기재될 정보** 기타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는 정보(재고관리기법, 간접재료 사용내역, 직접운송원칙, 수출관련 기록 등).
- **첨부자료** 추가로 설명되는 자료에 따라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

5. 증빙 참고자료

- **기재정보** 원산지소명을 위해 위에서 첨부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목록화해 제시.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변신'에서 주인공을 벌레로 만든 까닭 벌레는 '억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의 '탈출구'

“나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찢어대는 종류의 책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읽는 책이 머리에 한방 날려 의식을 깨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읽을 것인가? (중략) 우리에게 필요한 책은 재앙처럼 충격을 주는 책, (……) 자살처럼, 우리를 깊은 슬픔에 잠기게 만든 책이다.”

이렇게 전개된 이 글은 “무릇 책이란 우리 안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여야 한다”고 내리친다. 이 글은 난해하기로 악명 높은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1883~1924)가 21살 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의 표제로도 유명한 ‘책은 도끼다’라는 말은 바로 카프카의 이 글에서 유래한 말이다. 카프카는 왜 이토록 무시무시한 말로 책의 기능 내지 역할을 정의했을까. 어쩌면 ‘변신’을 비롯한 카프카의 소설이 난해한 것도 바로 ‘책은 도끼여야 한다’는 그의 언명 때문이 아닐까 싶다.

꿈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한 것이 카프카 작품의 특징

카프카는 “나는 문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밖에 다른 것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카프카는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딴 후 25살인 1908년부터 프라하의 노동자 채해 보험국 법규과에 근무하면서 야간에는 창작에 몰두했다. 카프카는 글쓰기의 강박증으로 인해 두 여인과 세 번에 걸친 약혼과 파혼을 되풀이하다 결혼조차 하지 못했다. 가부장적이고 폭군적인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는 그의 글쓰기와 삶에서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카프카는 구두수선공의 딸인 율리 보리체크를 알게 되었고 이듬해 약혼했지만 신분상승 욕망에 사로잡힌 아버지의 반대로

파혼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들에게 욕을 퍼붓다가, 나중에는 서른여섯 살 먹은 아들더러 차라리 사창가애나 가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때 입은 내면의 상처가 되어 쓴 것이 그 유명한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1919)다. 아버지는 아들이 유랑 극단의 유대인 배우 로비와 교제하자 “개랑 자는 놈은 빈대와 함께 일어난다”라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로비를 “갑충”이라고 불렀다.

“그를 알지 못하면서도 아버지는 제가 지금은 기억할 수 없는 어떤 섬뜩한 말로 그를 갑충과 비교하셨지요.” 1915년 출간된 소설 ‘변신’은 카프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욕감에서 1912년 11월 17일 일요일에 쓰기 시작해 27일 만에 완성한 글이다. 말하자면 카프카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와 ‘변신’은 아버지와의 불화에 의해 탄생한 ‘비극적인 작품’들인데 그게 카프카를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준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화가 날 때 다른 사람을 벌레에 비유하곤 한다. 또한 화가 난 부모가 자식을 비하할 때 ‘벌레 같은 놈(자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카프카는 아버지의 이 비유에서 소설적 착상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대작의 아이디어에 ‘기여(!!)’를 한 셈이다.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갑충(혹충스런 벌레)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했다.” ‘변신’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 소설을 읽는 독자는 그야말로 도끼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게 된다. 사람이 벌레로 변했다니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카프카 문학이 난해한 이유는 카프카가 현실세계와 꿈의 세계를 동일한 평면에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카프카는 소설에서 꿈의 기법을 사용하는데 꿈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

라, ‘꿈과 같은 내면세계’를 꿈과 같은 방식으로 서술한다. 즉 카프카는 현실과 꿈의 경계 없이 글을 쓴다. 카프카의 소설이 꿈과 같은 소설이 되고 그래서 난해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레고르 잠자는 소년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영업사원의 과중한 일 때문에 갑충으로 변신한다(이는 마치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중년의 가장이 잠적했다는 뉴스를 연상시킨다). 갑작스런 아들의 변신으로 인해 그 동안 무위도식 하던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은 다시 ‘직업’을 갖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 아버지는 은행 사환이 되는데 제복을 집에서도 벗지 않고 잠을 잔다. 잠자는 자신의 방에 고립 밀폐되어 있다가 방 밖으로 나와 가족과 합류하려고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려던 아버지가 던진 사과를 맞고 생긴 상처가 덧나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 후에 가족들은 하녀에게 그 ‘사후 처리’를 말할 뿐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카프카는 이미 ‘시골에서 결혼 준비’라는 작품에서 주인공 라반은 자신의 몸을 갑충으로 상상하고 있다. 주인공은 약혼녀를 달래기 위해 시골에 가야만 하는 도덕적 당위와 가기 싫다는 개인적 욕망이 충돌하면서 두 몸이 분리된다. 옷을 입은 몸은 시골로 가고 주인공의 본심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ㄱ 카프카의 소설에서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풍부한 감성과 감각을 지닌 정신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ㄴ

이때 주인공은 벌거벗은 동물인 갑충으로 등장한다. 곧 갑충으로서의 몸은 사회적 의무에서의 해방을 상징한다. ‘변신’에서도 잠자는 갑충으로 변신함으로써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소년가장’으로서의 역할에서 해방된다.

물질적 존재가 아닌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 추구

말하자면 인간에서 벌레로의 변신은 비참함으로 전락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치 못해하기 싫은 일을 하며 ‘억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의 탈출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꿈을 잃어버린 채 남 보기에 그럴듯한 ‘대기업 임직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껌데기뿐인 인생이라고 느낀다면 차선의 선택은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것일 수도 있다. 정신적인 풍족함을 추구한다면 그 게 차선의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자는 갑충으로 변하면서 음악에 감동하는 등 오히려 풍부한 감각과 감성을 지닌 정신적 존재로 재탄생한다.

카프카의 소설에서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풍부한 감성과 감각을 지닌 정신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가족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세대 간 갈등을 빚으면서도 죽음을 앞둔 주인공 잠자는 “말할 수 없는 동정과 애정을 느끼며 가족들을 돌이켜 생각”하며 죽어간다. 아울러 생산적인 일에도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잠자가 죽은 후 가족은 그에게 의지하던 태도를 버리고 생산적인 직업인으로 돌아가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카프카는 ‘변신’에서 자기 정체성, 가족, 생산적 노동 등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주인공을 ‘벌레’로 등장시킨 셈이다.㉠



일러스트 전희성

전통한과 무형문화재 최봉석 명인

전통 수제방식 고집... 한과 만들기는 '수행'의 과정

서양식 디저트들이 한창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엄청난 단맛을 내는 고칼로리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맛에 다들 굴복하고 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전통 디저트로는 이런 인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일까? 맛에 관해 까다로운 기자마저도 감탄하게 한 한과가 있다. 강릉에서 5대째 한과를 만들고 있는 최봉석 한과명인이다.

기자가 최봉석 명인(70)의 한과를 먹어본 것은 근래의 일이었다. 굳은 조청이 외관을 지탱하고 있지만, 속살은 투명할 정도로 얇은 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한 입 배어 무는 순간 공기와 입 안의 수분이 접촉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감촉에 깜짝 놀라게 된다.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혀를 감질나게 만든다. 다시 한 입 배어물지 않을 수 없다. 이 네모난 한과의 원래 이름은 '과줄', 한자로는 '산자(散子)'라 불린다. 한과(韓菓)는 서양과자를 뜻하는 양과(洋菓)가 아닌 전통의 과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어사전에도 과줄을 풀이한 것이 올라 있다. 이는 과줄이 한과의 대표주자였기 때문이다.

보름 이상 발효과정이 살살 녹는 식감의 비결

과줄의 특이한 식감의 비결은 보름 이상의 발효과정에 있다. 찹쌀을 물에 담궈 발효실에 놓아둔다. 특별한 효소를 넣지 않아도 공기 중의 발효균으로 자연발효가 일어난다. 서양식 제빵 과정에서 이스트 발효 후 열을 가하면 부풀어 오르는 원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과줄은 자연발효를 하며 발효기간이 긴 슬로우 푸드다.

2주간의 발효 후 이를 깨끗이 씻어 곱게 찧은 후 콩물과 반죽해 약한 불로 뒤집어가며 찐다. 적당히 끈기가 생기면 방망이 두 개로 쳐 주며 공기를 불어넣는 '패리치기'를 한다. 이어 반죽을 얇게 늘린 뒤 적당한 크기로 잘라 그늘이나 온돌에서 건조



한다. 이를 찹쌀바탕이라 한다. 대개 바탕의 크기는 가로·세로 10cm, 두께 0.7cm 정도다.

건조과정이 끝나면 바탕을 약한 불에서 기름에 1차로 튀긴 뒤 바로 고온의 기름에서 2차로 튀긴다. 이 때 순식간에 면적이 4배 이상으로 팽창한다. 두께도 2~3배로 부풀다.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신기한 광경이다. 넓게 퍼진다고 해서 과줄을 한자로 '산자'라고도 한다. 이렇게 튀겨진 바탕에 조청을 묻히고 튀긴 멥쌀을 묻히면 과줄이 완성된다.

'한과가 다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은 '분식집에서 파는 냉면이나, 수십 년 내력의 냉면전문점 냉면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최 명인의 집안은 1855년 이래 5대째 과줄을 만들어오고 있으며, 최 명인 또한 부친의 유고로 열아홉 살 때부터 50년 넘게 한과를 만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한과부문 강원도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됐다. 최 명인은 지금도 한과를 모두 수제 방식으로 만든다. 한과는 굉장히 예민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만 잘못돼도 앞서 얘기한 식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찹쌀을 보름 가까이 자연발효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찾아보기 드물다. 대량생산 방식의 과줄은 대개 2~3일 발효를 하게 되며, 짧은 발효에도 많이 부풀게 하려면 첨가제가 필요하다. 찹쌀바탕을 말리는 과정도 만만찮다. 바탕이 건조되면서 마치 오징어 구울 때처럼 가장자리가 휘어지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뒤집는 과정을 하루에도 몇 번 반복해줘야 한다. 농사 짓는 것처럼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다. 이 역시 기계화된 과정에서는 열을 가해 몇 시간 내에 건조를 완료한다.

수제 방식과 대량생산 방식의 차이는 2차 튀김 때의 부풀어 오르는 비율이다. 수제 방식의 찹쌀바탕은 마법처럼 순식간에 팽창하는 반면, 공장 방식에서는 부풀어 오르는 데 시간이 몇 초가량 더 걸리고, 팽창 비율도 떨어진다. 순식간에 많이 팽창해야 혀에서 살살 녹는 식감을 낼 수 있다.

명절 때 하루 주문량 비수기 한 달과 맞먹어

장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기술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끈기와 인내심까지 요구된다. 최 명인도 한과를 만들 때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한과를 '보살펴야' 한다. "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하나"라고 묻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찹쌀바탕을 사흘간 말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명절 때의 하루 주문량은 비수기 때의 한 달 주문량에 맞먹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하루라도 제작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왜 직접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일꾼들을 밤늦게까지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과는 성수기와 비수기 주문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원을 상시고용할 수 없고, 명절 때마다 동네 아낙들을 임시로 고용하게 된다. 물론 그들 또한 최 명인과 함께 이곳에서 수십 년째 한과를 만들어 온 기술자들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는 이들을 대신할 젊은 사람은 드물다. 일손이 귀하다 보니, 일꾼들에게 밤새 일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명절 때마다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최 명인의 딸까지 와서 거들어야 할 정도로 일손이 달리는 것도 한과의 명맥을 유지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다.

IT업에 종사하다 몇 년 전부터 기업을 잇고 있는 아들 최형준 씨(38)는 "남들은 기업을 잇는다고 하면 부러워하겠지만, 막상 해보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하는 '수행의 과정'이라며 "전통 방식을 고수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보니, 대량생산 방식을 도입한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과에 대해 미처 몰랐던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한과를 먹어보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양식 디저트에 가려져 전통 방식의 한과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전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은 아쉬울 따름이다.☹



1 최봉석 명인이 만든 한과는 보름 이상 자연발효 과정을 거치는 슬로우 푸드다. 2,3 발효가 잘 된 반죽은 튀길 때 순식간에 부풀어 오른다. 4 빠른 시간에 많이 팽창해야 입에서 살살 녹는 식감을 낼 수 있다.

해금 연주 듀오 투해금

전통 악기 해금의 매력을 퓨전 음악에 담았다

투해금은 올 10월에 첫 연주앨범을 낸 해금 연주 듀오다. 20대의 나이지만 해금 연주를 시작한 지는 13~15년 된 베테랑들이다. 이들이 앨범을 낸 이유는 해금만으로도 매력적인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들로부터 해금의 매력이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투해금’은 국악밴드 ‘소름’의 신윤선(왼쪽)과 ‘풍유량’의 전상연으로 결성된 해금 듀오다.



신윤선(28)·전상연(26) 씨는 중앙대학교 국악관현악과 06학번·08학번 선후배다. 고등학교도 시흥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나온 선후배사이다. 둘 다 옛돼 보이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악공연을 하는 프로 연주자다. 앨범을 기획한 장경석 와인뮤직 대표는 “연주를 잘 하면서도 해금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멤버를 뽑았다”고 영입 기준을 설명했다.

앨범을 냈다고 해서 연예인을 지망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만나보니 연예인보다는 인디 뮤지션에 가깝다. 신 씨는 국악밴드 ‘소름’에 소속돼 있고, 전 씨는 ‘풍유량’이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악학원에서 비전문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기도 하다. 둘 다 말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해금에 대해서 물어보자 산더미 같은 지식을 풀어냈다.

어떤 악보든 연주 가능한 것이 해금의 매력

해금은 찰현악기로 분류된다. 줄을 마찰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다. 서양 악기의 현악기와 원리는 비슷하다. 비슷한 악기로 아쟁이 있는데, 아쟁은 가야금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가야금이 손으로 뜯는다면 아쟁은 활대로 마찰시켜 소리를 낸다.

해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음악이든 조율할 필요 없이 모든 악보가 연주 가능하다는 점이다. 피아노로 치면 2~3옥타브의 음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 반면 그렇기 때문에 연주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바이올린의 경우 손가락 끝으로 줄을 짚어주면 음이 잡힌다. 그러나 해금은 줄을 손으로 움켜쥐어야 한다. 어디를 움켜쥐느냐에 따라 음정이 달라지는데, ‘도’와 ‘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내기가 쉽지 않다.

신윤선 씨는 “처음엔 음을 잡는 것이 어려운데, 꾸준한 연습을 통해 손가락에 메모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해금 전공자들도 1년 이상 음을 잡는 연습을 해야 한다. 피아노로 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바이엘’ 1년을 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들의 손가락 안쪽 마디들에는 굳은살이 잡혀 있다. 서양악기 연주자들은 손만 봐선 바이올린·비올라·첼로·콘트라베이스 혹은 기타 연주자인지 금방 구분이 되지 않지만, 해금 연주자는 손만 보면 바로 알아챌 수 있다. 네 손가락 모두에 굳은살이 잡혔지만, 특히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중지과 약지의 가운데 마디가 특히 단단하다.

움켜쥐고 당겨야만 음이 잡히기 때문에 속주가 쉽지 않다. 투해금의 앨범 중 ‘풍전등화’란 곡은 해금으로 얼마나 빨리 연주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본 곡이다. 신 씨는 “처음엔 너무 빨라서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느리게 하니 맛이 살지 않았다. 거의 매일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했다”고 했다.

왼손이 어렵다고 해서 오른손이 거저 노는 것은 아니다. 대나무에 매단



말꼬리는 평소 살짝 늘어져 있는데, 이를 오른손으로 팽팽하게 당기고 현을 마찰시키는 기술에 따라 소리의 색이 달라진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가 날린다라고 하는데, 팍 찬 웅골진 소리를 내려면 오른손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왼손은 정확한 음을 짚어야 하므로 이성적인 역할이라면, 오른손은 깊은 소리를 내야 해서 감성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10~20년 뒤에도 꾸준히 활동하고파

해금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해졌다. 해금의 울림통은 동그란 대나무뿌리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만든다. 그러다 보니 만들어지는 어떤 해금도 완전히 똑같은 모양은 없다. 활대는 대나무와 말꼬리로 만들어지며, 울림통과 연결된 현은 명주로 만들어진단다. 비싼 것은 500만 원을 넘기도 하지만, 이는 금붙이와 자개로 멋을 낸 것에 대한 가격이고, 음악적인 완성도만을 추구한 전문가용은 300만~400만 원 사이다. ‘악기장’으로 불리는 기술자가 직접 좋은 대나무뿌리를 채취해서 정성을 들여 만든 악기다. 초보자용의 가격은 40~50만 원선이다. 초보자가 배우려면 각 지역 문화센터 또는 국악학원에 등록하거나, 전공자로부터 레슨을 받아야 한다. 2010년 주인공(배우 한효주)이 해금 연주자로 나온 사극 ‘동이’가 방영된 이후 해금을 배우려는 일반인들도 늘어났다.

투해금 멤버가 생각하는 해금의 매력은 무엇일까. 전상연 씨는 “해금은 남성적 성격과 여성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고, 또 밝은 느낌과 어두운 느낌을 모두 갖고 있어 표현의 범위가 넓은 것이 매력”이라고 얘기했다. 신윤선 씨는 “1집에서는 동양적 요소와 서양식 밴드, 보컬 등 퓨전적 요소로 만들었다면, 다음 앨범에서는 다른 악기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2대의 해금으로만 된 연주를 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요즘엔 음반을 CD로 구워 유통시키지 않고 음원만을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 또한 프로듀싱을 담당한 장경석 대표는 작곡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꾸준히 활동하는 작곡가와 연주자가 모여 자신만의 색을 내는 앨범을 10~20년 뒤에도 계속 낼 수 있다는 것이 투해금의 앞날이 기대되는 이유다.☞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한·중/한·뉴질랜드 FTA 타결 이후 후속조치 계획 등 통상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6일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 국조실 등 20여 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윤상직 장관 주재로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후속조치 계획을 비롯한 네 가지 사안이 논의됐다.

①한·중 FTA 후속조치 계획

정부는 한·중 FTA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 참여하는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가동해 정부와 민간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섬유·의류, 철강, 전자·전기,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생활용품, 농림·축산, 수산, 보건 등 10개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하고, 별도로 중소기업대책반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유망품목 발굴 논의, 현장방문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업계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②우리와 외국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 방안

현재 세계무역은 국가 간 상품교역을 넘어 제조공정, 기술개발

등 상호 특화된 역할 교역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①협업 프로젝트 발굴과 국제적 동반자관계(글로벌 파트너십) 지원 ②고부가가치 협업 유도 ③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결망(네트워킹)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3국 공동진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공동진출 프로젝트 상시 발굴 및 의제화, 우리 기업과 주요국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③WTO 환경상품협정(EGA) 추진계획

우리나라는 차기 협상부터(12월 1~5일) WTO 복수국간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에 공식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협상 출범 공동선언(7월 8일), 2차례 협상(7월 9~10일, 9월 22~26일) 당시 협상 전 국내 절차 추진 중으로 비공식 참여,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차기 협상부터 공식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협상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전문가·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팀을 확대구성·운영하기로 했다.

④한·뉴질랜드 FTA 타결 이후 후속조치 계획

정부는 한국·뉴질랜드 FTA를 통해 대(對)뉴질랜드 수출 확대, 인력진출 활성화, 농림수산분야 협력 등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뉴 FTA의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에 기초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올해 말까지 협정 문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완료하고 가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통상전문가들, 한·중 FTA 이후 우리의 통상정책 방향에 논의



제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가 11월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세영 위원장을 포함, 2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요논의 내용은 ①한·중 FTA 협상 결과와 향후 계획 ②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③WTO 협상 동향 및 전망이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중 FTA 타결은 미국·EU 등 거대시장과 FTA를 완결함과 동시에,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

(linch-pin)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spring board)을 확보한 의미가 있다"며 "한·중 FTA를 잘 활용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후 TPP나 WTO와 같이 다자 및 복수국간 진행되고 있는 세계 통상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다 같이 고민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간자문기구로서, 통상정책 수립 및 협상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자문위원들은 국회·학계·업계·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상품·규범·서비스 등 전문가로 구성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인 '전략적 FTA 추진'과 관련된 민간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한·중·일 FTA 제6차 실무협상 개최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집중 논의

한·중·일 FTA 제6차 실무협상이 11월 24~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중국은 쑨위안장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을, 일본은 타초 사토 외무성 경제부국장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부터는 공식협상을 실무협상과 수석대표 협상으로 분리 개최한 것이 특징이다.

한·중·일 FTA은 2012년 11월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협상 동안 3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경쟁, 지적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다양한 규범과 협력 분야까지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3국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modality: 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을 집중 논의

했다. 또한 지난 5차 협상에서 분과 신설에 합의한 산업협력, 에너지 등 분야를 포함한 총 19개 분과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투자, 총칙 등 일부 분과의 경우 중국의 사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최근 실질 타결된 한·중 FTA와의 정합성을 유지해 나가며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경제통합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경제영토



FTA를 맺는 이유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없애 마치 하나의 시장처럼 교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발달된 형태의 통합시장인 유럽연합(EU)을 보면 하나의 시장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FTA를 맺은 국가끼리는 하나의 시장처럼 교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의 영토가 아니라 경제영토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리적 영토는 단순히 땅의 넓이로 측정될 수 있지만, 경제영토는 시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시장의 크기는 대개 그 나라의 경제력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영토란 전 세계 GDP의 총합에서 '자국의 GDP+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GDP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한국은 최근 FTA 협상을 타결한 중국과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경제영토의 크기가 73.4%에 이릅니다. 이는 한국의 GDP 1.7%에 나머지 14개 FTA 상대국의 GDP 71.7%를 합한 것입니다(이상 GDP는 2013년 세계은행 기준).

세계에서 가장 경제영토가 넓은 나라는 칠레로 무려 85.1%에 이릅니다. 그 뒤를 페루(78.0%), 멕시코(63.6%), 코스타리카(63.5%)가 있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체결된 FTA가 모두 발효되면 단숨에 경제영토 세계 3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영토가 진정한 하나의 시장이 되려면, 한국이 FTA를 맺은 나라끼리 자유롭게 생산요소가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업체가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해도 FTA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FTA를 맺은 양국끼리만 역내산을 인정하고 있어 경제영토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매달 도서관에서 챙겨보고 있는데, 알지만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짝짝 실려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국제경제법을 공부하면서 읽으니 그 재미가 배가 되네요. 매월 연재되는 세계의 FTA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아닌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FTA를 바라 볼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FTA 체결 대상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김보경(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FTA에 대하여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기는 했지만 필요성과 전망 등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호를 통해 한국의 2대 교역국인 아세안과의 FTA 현황 및 전망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FTA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소식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성아름(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매달 기사를 읽으면서 FTA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FTA를 체결한 국가와 현재 협상중인 국가들과 함께 서로 상생하며 더욱 윤택해진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종민(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평소 FTA에 관심이 많았지만 정확한 자료를 얻기 어려웠는데, 교수님의 추천으로 '함께하는 FTA'를 보게 되면서 FTA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원산지 코너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봉한(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일반인에게 무역은 친근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어렵고 까다로운 분야인데 '함께하는 FTA' 덕분에 무역과 친해 질 수 있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친구 같은 '함께하는 FTA'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상철(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FTA에 대해 관심이 많아 책자나 방송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주부입니다. '함께하는 FTA' 책자는 다양한 내용이 많아 좋습니다. 국내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지만 FTA 체결로 저렴한 가격에 수입농산물, 과일, 와인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좋습니다.

차민홍(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경제
영역
3년
3년
30년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14억 중국 내수시장 진출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농수산물 개방 최소화 약속 지켰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14억 인구의 중국시장이 더 크게 열립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연간 87억불에 해당하는 수출관세를 즉시 철폐, 458억불의 수출관세는 10년 내 철폐



수출기업의 비관세 장벽이 더 낮아집니다.

700달러 이하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의무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특혜관세 사후 신청, 중국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등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가 더 넓어집니다.

중국 농수산물의 93%(농산물 91%, 수산물 99%)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고품질 친환경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 기대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경제는 물론 문화 관광 교류 활성화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 안보에 도움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